

‘속도’에 운명 건 e커머스, 사활 건 배송전쟁

스페셜 리포트

2004년 설립된 중국 2위 이커머스 기업 징둥그룹은 창업 10년 만에 미국 나스닥에 입성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 기업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징둥닷컴은 고질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2017년까지 9년간 징둥닷컴의 누적 손실액은 188억 위안(3조1830억 원)에 달한다. 징둥의 손실은 과감한 물류 투자가 원인이다. 직매입·직배송 모델을 도입한 징둥은 전통적 물류센터뿐 아니라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물류사업에도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었다고 있다. 징둥의 물류 투자 비용은 한 해 295억 위안(4조9879억 원)으로 9년 누적 손실을 넘어서는 규모다.

징둥닷컴이 물류 투자를 단행하는 이유는 고객과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물류센터를 거점으로 각 도시에 1~2시간 내에 배송 가능한 소규모 창고를 확보

중·중등 손실에도 과감한 물류투자 알리바바도 오프라인 매장 적극 인수 쿠팡, 작년 8월 ‘쿠팡플러스’ 론칭 백화점·홈쇼핑·편의점도 배송 가세 제조업 가동률 증가로 이어지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선순환 효과

해 거미줄 같은 배송망을 갖추고 있다. 최근 국내에 도입되고 있는 당일 배송보다 몇 배 더 빠른 속도다.

중국 최대 이커머스 기업인 알리바바는 오프라인 매장 인수에 적극적이다. 알리바바는 중국의 월마트라 불리는 선아트리테일의 지분을 사들였고, 신선식품 배달 체인 허마도 인수했다. 이는 2위 징둥닷컴의 물류 시스템과 경쟁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배송을 펼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주요 이커머스 기업 물류 인프라 현황 및 투자 계획

| 기업명 | 물류 현황 및 투자 계획 |
|--------------|-----------------------------------------------------------------------------|
| 알리바바 | · 5년간 156억 달러 투자로 물류 허브 구축 및 항공 물류 협력 강화 · 2026년 전 세계 3일 이내 배송 시스템 구축 목표 |
| 아마존 | · 전 세계 175개 물류센터 운영 · 드론 배송· 무인 배송 및 미국 내 당일 배송 시스템 |
| 징둥닷컴 | · 486개 1000만㎡ 규모 물류시설 확보 · 향후 창고 면적 포함해 물류 시설 5000만㎡로 확대 |
| 쿠팡 | · 축구장 151개 넓이 물류센터 확보 · 음식배달 서비스 ‘쿠팡 이츠’ 본격화 |
| 쓱닷컴(SSG.COM) | · 5~6개 대형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건립 |



오프라인 매장을 징둥의 소규모 창고에 대항마로 내세운 것이다. ▶관련기사 3면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사상 첫 100조 원을 넘어선 우리나라도 온라인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유통업계의 배송 경쟁이 치열하다. 소비자들이 모바일·온라인으로 쇼핑한 물건을 누가 더 빨리 배달해주는지가 핵심 경쟁력이 되면서 유통업계가 배송 서비스에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빠른 배송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물류 시장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공장 가동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유통기업들이 빅데이터를 통해 제품별 판매량을 분석하고 제품을 물류창고에서 출고할 때마다 며칠 동안 판매할 물량을 추가로 확보한다. 배송이 빨라지면 그만큼 제조사로부터 주문 주기도 짧아진다.

세종대 유통산업학과 전태유 교수는 “배송이 빨라지면 재고 소진도 빨라지는 만큼 배송 경쟁은 제조업의 가동률 증가로 이어진

다”며 “이는 배송사원 채용뿐 아니라 제조사 일자리까지 늘리는 효과가 있어 경제 전반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커머스 기업이 오프라인 고객을 온라인으로 끌어들이는 동력이 되는 배송 전쟁은 당일을 넘어 징둥처럼 1~2시간 배송에 근접하는 형태로 가속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은 올해 1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아마존을 벤치마킹하는 쿠팡을 필두로 신세계가 기존 온라인몰을 통합한 SSG닷컴을 론칭했다. 올해 매출 목표 3조1000억 원인 SSG닷컴은 장기적으로 전국 주요 거점에 5~6개의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확보해 국내 이커머스 업계 최초로 ‘10조 기업’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여기에는 ‘온라인 장보기’ 확산으로 백화점, 홈쇼핑, SSM, 편의점, 식품업체까지 배송 서비스에 뛰어들고 있어 온라인 주도권을 둘러싼 배송 춘추전국 시대가 열렸다. 유현희 기자 yhh1209@

기업회생 보고서 ①

(하루 평균)

‘희생 문’ 두드린 4곳 중 1곳 빛 못본채 결국 파산의 길로

작년 법원 회생 신청 980곳
파산 접수 6년새 2배이상 ‘쑥’
중소기업 부실징후는 더 심각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법인 회생 | 접수 | 925 | 936 | 878 | 980 |
| | 인용 | 652 | 637 | 629 | 680 |
| 법인 파산 | 접수 | 587 | 740 | 699 | 807 |
| | 인용 | 508 | 590 | 587 | 635 |

*출처: 대법원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하루 평균 4곳이 빛에 허덕이다 법원 회생의 문을 두드렸다. 그중 1곳은 파를 토하는 고통을 안고 파산의 길로 들어섰다.

3일 금융권과 파산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전국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은 총 980곳으로 집계됐다. 영업일(246일)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 평균 4곳꼴이다. 그중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은 680곳이었다. 10곳 중 3곳 정도가 회생법원의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파산절차에 돌입한 셈이다. ▶관련기사 10면

법원은 기업의 존속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결정한다. 존속가치란 기업이 영업을 이어갈 때의 기업가치, 청산가치란 영업을 중단할 때의 기업가치다.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클 경우 회생절차를 통해 기업을 살리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파산절차를 통해 기업을 정리하게 된다.

회생 접수 건은 2012년 803건으로 2016년(936건)까지 꾸준히 늘었다. 다만 2017년엔 878건으로 다소 줄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2017년의 경우 정권 교체와 주가 상승장 흐름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밖에 도산

관련 지표들도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파산 접수와 인용 건수는 지난해 각각 807건, 635건 등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파산 접수 건이 2012년 396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6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회생절차 신청과 파산 신청은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유독 파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펀더멘털이 취약한 기업이 많다는 방증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부실징후가 나타난 중소기업 수는 총 180곳에 달한다. 100곳 중 8곳가량이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특히 ‘법정관리’ 대상으로 분류되는 C등급의 기업이 132곳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법원 주도로 도산 작업이 진행되는 법정관리와 달리, 워크아웃은 채권단과 채무자의 자율적 계약으로 이뤄진다. 그만큼 더 심각한 부실징후를 보이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대기업의 부실징후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부실징후는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곽진산 기자 jinsan@



오늘도 미세먼지 ‘나쁨’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한 3일 서울 용산구 남산을 오른 관광객들 뒤로 검붉은 먼지에 싸인 서울도 심이 보인다. 뉴시스

文대통령, 7일 ‘중폭 개각’

박영선 의원 등 7명 입각 유력
오늘 대사 인사...주중대사 장하성

문재인 대통령은 7일께 7명 안팎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4일에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 대사 인사를 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일 개각과 관련해 “주 후반쯤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대사급 인사는) 4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화체육부 장관엔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장관에는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해양수산부 장관엔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

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진영 민주당 의원과 김병섭 서울대 교수가, 국토교통부 장관엔 최정호 전라북도 정무부지사와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이 물망에 올랐다.

다만 내년 총선 출마 준비로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현재 후임자 검증 변수로 인선이 늦어질 수 있어 4월 재·보선 이후 교체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4일 주요국 대사 인사를 한다. 주중 대사에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러시아 대사에 이석배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 주오스트리아 대사에 이상철 전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이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민 기자 lawsdm@

‘하노이 쇼크’ 경협株 시총 하루 5.6兆 증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여파로 남북 경협주로 꼽히던 기업들의 시총이 하루 만에 5조6000억 원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경협 관련 종목 130개의 주가는 회담이 결렬된 지난달 28일 하루 평균 10.35%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들 종목의 전체 시가총액은 134조594억 원에서 128조4629억 원으로 5조5965억 원 줄었다. 이들 종목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각각 ‘경협주로’ 거론되는 종목으로 분류한 기업과 삼성증권이 경협 관련 유망종목으로 제시한 기업들을 합한 것이다. 시총이 가장 많이 줄어든 기업은 금강산 리조트 사업을 하는 아너티로, 28일 하루에만 주가가 25.83% 급락하면서 시총이 6051억 원이나 감소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X세대' 총수들은 아버지 세대의 권위적 모습을 버리고, 직원들과 편하게 소통하는 친근한 이미지를 추구한다. 양복 대신 청바지를 입고 공식 행사에 나서며, 구내 식당에서 젊은 직원과의 사진촬영에도 흔쾌히 응한다.

재계 新바람 ... '권위' 벗고 '실용' 입은 X세대 총수들

(1968년 전후 출생)

대한민국 재계가 급변하고 있다. 중심에는 이른바 1968년을 전후해서 태어난 'X세대' 총수들이 있다. 경제적 풍요 속에서 성장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해 개성 강한 신세대로 불렸던 X세대 특징이 이들 경영 방식에도 강하게 묻어나고 있다. 권위보다는 실용을 중시하고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기업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1968년생),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1970년생), 구광모 LG그룹 회장(1978년생),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1970년생),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1975년생), 허세홍 GS칼텍스 사장(1969년생),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1968년생),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1968년생), 조현식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부회장(1970년생),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1972년생) 등이 주인공이다.

◇ 양복 벗고 청바지 입는다=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은 3월부터 오랜 관행을 깨고 전 직원의 '노타이·청바지' 자율 복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정 부회장은 2017년에도 코나 출시 행사장에 청바지를 입고 등장하기도 했다. 구광모 LG 회장도 자율적인 복장문화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주 2회 실시하던 '캐주얼 데이'를 주 5일로 확대했으며, 올 새해 모임에는 모든 임직원이 형식을 타파하고 캐주얼 복장으로 참석했다.

또 LG그룹은 매년 4차례 진행하던 분기별 임원 세미나를 월레포럼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재계 관계자는 "전문가 강연과 임원 토론을 통해 학습의 깊이를 더하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구 회장이 취임 후보여운 소탈하고 실용적인 행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구 회장은 그룹 내에서 자신을 지칭하는 명칭을 '회장'이 아닌 '대표'로 해 달라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하는가 하면 올해 시무식을 'LG사이언스파크'에서 개최하면서 임원뿐만 아니라 생산직, 연구직 등 다양한 직무의 직원 700여 명을 초청해 눈길을 끌었다.

◇ 업무효율 높이고 소통은 활발히=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효율적인 경영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해외사업을 직접 챙기며 회사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그 결과, 싱가포르·홍콩·마카오 등 공항에 면세점을 진출시키며 업계 최초로 해외 매출 1조 원 시대를 열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이 취임한 이후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회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격식 없는 토론을 하는 것은 물론 사업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실무자의 의견을 듣는 것을 선호한다. SNS나 메신저를 통해서도 보고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도 유연한 조직 문화를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올해

자유로운 복장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이달부터 노타이·청바지 허용

과감한 투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미래성장사업에 180조 투자

실리적 동맹

삼성전자·현대차 견제 점프
전기차 배터리 등 협업 가능성

신년사에서 "임직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역시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 과거보다 훨씬 과감한 투자 결단= 종전에는 조심스러웠던 투자가 '통 큰 미래 투자'로 변했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최근 향후 5년간 현대차의 연구·개발(R&D)과 미래 기술 분야에 총 45조3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연평균 9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과거 5년 연평균 투자금(5조7000억 원) 대비 58% 이상 늘어난 수치다. 현대차가 구체적인 수익성 목표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올해 삼성전자 창립 50주년에 앞서 지난해 8월, 2021년까지 18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공격적인 경영 계획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5G(5세대 이동통신), 바이오 등 미래성장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현금 100조 원을 돌파하며 실탄을 충분히 확보한 이 부회장은 올해부터 인수합병(M&A)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큰 세계 3위 파운드리(칩 위탁생산) 업체인 미국 글로벌파운드리 유력한 인수 후보도 삼성전자다.

한국타이어 역시 글로벌 M&A를 통해 그룹 성장동력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경영 전면에 나선 조현식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부회장과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이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진두지휘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독일 중남부 지역에서 44개의 매장을 운영 중인 타이어 전문 유통점 라이펜-물러를 인수한 게 주요 사례다. 이 밖에 정용진 부회장이 미국 현지 유통기업인 '굿푸드 홀딩스'를 약 3075억 원에 인수했다.

◇ 불편한 경쟁보다 실리적 동맹, 순혈주의도 타파= X세대 총수들은 그룹 간 협업에도 적극적이다. 특히 삼성과 현대차의 경우, 이재용·정의선 시대가 도래하면서 과거에 보기 힘들었던 협업 움직임도 보인

다. 최근에는 자동차 시장에서 과거 양금이 있던 현대차와 삼성 간 전기차용 배터리 등 협업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에는 삼성전자와 기아차가 자율주행차 기술 제휴 마케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허세홍 GS칼텍스 사장은 취임 이후 기존 사업을 강화하면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활발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1월 LG전자와 손잡고 전기차 시대를 대비한 '미래형 주유소'를 만들기로 했다. 또 롯데렌탈의 자회사인 카셰어링 그란카에는 총 350억 원의 전략적 투자를 하며 카셰어링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그룹 정통을 따르기보단 인재육성을 우선시하는 것도 X세대 총수들의 변화한 모습이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말 사장단·임원 인사에서 과감한 세대교체를 감행했다. 특히 중국시장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20여 명에 달하는 임원을 대폭 물갈이했으며, 연구개발본부장 자리에 최초로 외국인 임원을 앉혔다.

재계 관계자는 "X세대의 특징은 종전의 가치나 관습에서 자유롭다는 것"이라며 "이들 세대가 그룹을 이끌면서 아버지 세대와는 다른 과격적인 행보와 실용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송영록 기자 syr@
김유진 기자 eugene@

h point

고객에게 주는 세상에서 가장 큰 혜택

H.Point는 하나의 ID로
현대백화점그룹 전 계열사의
온라인 서비스에 로그인 가능하고
온/오프라인 어디서든
포인트 적립과 다양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멤버십입니다.

현대백화점 | 현대홈쇼핑 | 현대아울렛 | 현대백화점 Duty Free | 한성 | 현대G&F | 현대리마트 | 현대HCN | 현대렌탈케어 | 현대그린푸드 | 현대드림투어 | 더현대닷컴 | 현대Hmall | 더한섬닷컴 | H패션몰 | 현대위크몰 | 현대어린이책미술관

당일배송? 난 새벽도착!... '한국판 아마존' 향해 질주

유통街 '배송 전쟁'

국내 배송 서비스 전쟁(戰場)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이커머스(전자상거래) 등 유통 채널을 넘어 식품 기업까지 가세하고 있다. 배송 전쟁에 참전 기업이 늘고 있는 이유는 상품만으로 차별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유통 시장의 주도권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감에 따라 빠른 배송은 확실한 차별화 전략으로 자리잡았다. 여기에 1인 가구 증가와 주 52시간 근무제로 신선식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도 한 원인이다.

실제로 올 초 모바일 여론조사 스타트업 오픈서베이가 국내 거주 20~49세 여성 1500명을 대상으로 식품 온라인 배송 서비스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월 1회 이상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한다고 답했다. 유통기한이 비교적 짧은 식품은 그만큼 자주 구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커머스 기업들이 눈독을 들일 만한 시장이다. 이 시장을 잡으려면 신선도가 곧 핵심 경쟁력이며, 이를 위한 촘촘한 배송망은 필수다.

◇유통 공룡의 온라인 도전... 핵심사업은 '물류센터 확보' = 출점 절벽과 규제 강화에 유례없는 불황을 겪고 있는 전통 오프라인 유통 공룡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새롭게 올인하는 사업이 온라인이다. 롯데는 지난해 8월 이커머스 사업분부를 신설해 5년간 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선포했다. 신세계 역시 지난해 1월 '디지털 시프트'를 선언해 온라인 1조 원 투자 계획을 알렸다. 이달 초에는 에스에스지닷컴(SSG.COM)을 공식 출범해 2023년 매출 10조 원 달성을 공언했다. 홈플러스도 이달 중으로 온라인 시장에 강력한 출사표를 던진다.

이들이 가장 공들이는 분야는 빠른 배송을 위한 물류센터 확보다. 신세계는 우선 주문량의 80%를 차지하는 수도권 배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김포와 용인에 위치한

"女 70% 월 1회 이상 온라인 구매" 신세계-롯데, 물류센터 확대 속도전

유통기업 넘어 식품기업까지 가세 1인가구 위한 간편식 배달도 불티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확장하고, 그 외 지역은 이마트 점포 내 P.P(Picking and Packing)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직은 사업의 핵심인 '배송'에서 이커머스 업체들이 단연 앞서 있다. 국내 이커머스 업체의 강자 쿠팡은 지난해 소프트뱅크로부터 약 2조 원을 수혈받고 고양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새벽배송-당일배송-배송 속도전 가속화 = 배송 경쟁이 확산되면서 새벽배송, 당일 배송 등 속도 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샐러드'를 통해 국내 새벽배송 시장을 열어젖힌 마켓컬리는 창업 2년 만에 매출이 15배나 성장하며 말 그대로 업계의 샐러드로 떠올랐다. 마켓컬리를 필두로 2015년 100억 원에 불과하던 새벽배송 시장은 지난해 4000억 원 규모까지 커졌다. 쿠팡의 경우 유료회원 멤버십인 '로켓와우클럽'에 가입하면 '로켓프레시'라는 신선식품 새벽배송을 받을 수 있다.

GS 리테일이 운영하는 GS fresh는 2017년 7월 모바일 쇼핑몰로는 처음으로 새벽배송을 도입했다. 이마트는 '쓱배송 굿모닝', 롯데마트와 롯데슈퍼는 '롯데프레시' 등을 운영 중이며 현대백화점은 백화점 업계 최초로 지난해 7월 새벽배송 서비스인 '새벽식탁'을 선보였다.

CJ대한통운은 2017년 업계 최초로 가정간편식 전문 배송업에 진출했다. 새벽배송 전담 배송 조직과 전용 터미널을 통해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가 원하는 빠른 배송 상품은 가정간편식 = 1인가구, 맞벌이가구 증가로 가정간편식(HMR) 시장이 급팽창하는가



운데 '밀키트'가 배송 서비스와 만나 더욱 시너지를 내고 있다. 밀키트(meal kit)란 RTC(Ready to Cook) 형태로, 유명 셰프의 요리를 곧바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손질된 원·부재료를 담은 가정간편식의 일종이다.

한국아쿠르트는 지난해 4월부터 가정간편식 '잇츠온'의 정기배송 서비스를 시작

했다. 한 번의 주문으로 한 달치 식단을 집까지 무료로 배달하는 서비스다. 한국아쿠르트는 시행 한 달 만에 정기 고객 1만 명을 확보했다.

동원F&B가 운영하는 식품 전문 온라인몰 '동원몰'은 전일 오후 5시까지 주문할 경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HMR 제품을 배송해주는 새벽 배송 서비스 '밴드프

레스'를 개시했다. 아직은 서울 수도권에 서비스가 한정돼 있다.

오픈마켓에서도 '빠른 배송'을 앞세운 가정간편식 수요가 늘고 있다. G마켓·옥션·C9를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간편식 '스마일배송'은 전년보다 125% 늘어났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남주현 기자 joo@

"아마존처럼 쓰고, 알리바바처럼 팔자"

韓 이커머스, 공격투자·영역확장 등 해외 성공사례 벤치마킹

전자상거래의 절대 강자 아마존과 알리바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적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공격적인 투자로 몸집을 키워 전자상거래의 교과서로 자리매김한 대표 기업들이다. 이들의 공격적 투자, 배송 인프라 확대, 사업영역 확장 등은 국내 기업이 본받을 만한 점이다.

아마존은 극한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강행해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1994년 탄생한 아마존은 지속해서 적자를 기록했고 2000년에는 매출 28억 달러(한화 약 3조1861억 원)에 손실 14억 달러(한화 약 1조5930억 원)를 떠안았다. 당시 회사의 주가는 100달러에서 6달러로 추락했다. 위기 속에서도 아마존은 물류센터 건설, 배송로 인하, 직접 배송 등에 투자해 창업 8년 만에 흑자 달성에 성공했다. 당장 위기에 움츠러들기보다는 투자를 확대해 몸집을 키우는 아마존만의 철학이 지금의 아마존을 만든 셈이다.

쿠팡은 아마존의 서비스를 벤치마킹해 새롭게 선보인 기업으로 꼽힌다. 쿠팡은 지난해 10월 유료 배송 멤버십 '로켓 와우'를 도입했다. 로켓 와우는 주문 가격과 상관없이 주문한 상품을 무료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로, 오전에 주문한 일부 품목은 당일 받을 수 있고, 신선식품은 다음날 새벽 받을 수 있다. 로켓 와우의 원조는 아마존의 유료 멤버십 '아마존 프라임'이다. 아마존 프라임은 2일 이내에 주문한 상품을

배송해주는 유료 멤버십 서비스로, 월 12.99달러에 무료배송과 동영상·음악 무제한 감상 혜택을 제공한다.

쿠팡은 올해 초 제품별 배치를 설계하는 랜덤스토우(Random Stow) 시스템도 선보였다. 랜덤스토우는 제품의 주문 빈도, 상품의 입·출고 시점을 빅데이터로 예측해 최적의 진열 장소를 입고 담당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로, 이 역시 미국 아마존을 벤치마킹했다.

아마존과 견주는 알리바바는 경계를 구분하지 않고 사업영역을 확장해 세계 시장에 이름을 알렸다. 알리바바는 1999년 항저우의 작은 아파트에서 탄생했다. 국내 온라인몰 시초로 불리는 옥션과 같은 해에 설립됐지만, 옥션은 이베이에 팔렸고, 알리바바는 중국을 넘어 세계 시장의 강자로 우뚝 섰다. 알리바바 성공의 배경은 공격적인 영역 확장이다.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 업체로 출발했지만 물류, 금융뿐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스마트호텔 등 경계를 두지 않고 몸집을 불렸다. 창업자 마윈은 "특정 영역에 머물지 말고 기술과 사회환경 변화에 적응해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알리바바는 인공지능·로봇 호텔인 '플라이주', 무인 로봇 물류센터, 스마트 임대주택을 선보이며 마윈의 철학을 끊임없이 실천 중이다.

박미선 기자 only@

KB 금융그룹

아이의 미래, 더 밝아야 하니까 희망 가득 드릴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들의 희망을 지켜주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KB손해보험은 생각합니다
자녀보험이 든든해야
아이들의 내일도 더 밝아진다고 -

**희망 가득한 보험
KB손해보험**

소중한 우리 아이 미래까지 든든하게
KB The드림아이종은자녀보험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2126호 (2019.01.07) •주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 빌딩 www.kbinsure.co.kr •고객콜센터:1544-0114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한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 보장 내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해약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무역분쟁·경기 둔화 우려... 中, 성장률 2년 만에 낮출 듯

두 가지 관전 포인트

5일(현지시간)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우리나라 국회에 해당)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향후 중요 정책을 전인대에서 결정하는데, 올해에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년 만에 하향하고, 경제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는 5일 전인대 개막과 함께 하는 정부 활동 보고서에서 2019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6.5%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6.5~7%에서 2년 만에 6.5%대로 낮아지는 셈이다. 작년 실제 성장률은 6.6%로 목표치인 6.5% 전후를 웃돌았다. 다만 작년 가을 경기 부진으로 2018년 4분기 성장률은 6.4%까지 떨어졌다. 중국 정부는 올 상반기도 경기 둔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성장률 목표치를 낮추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 활동보고에서는 경기 둔화에 대한 대응책도 주목된다. 리 총리는 대규모 감세와 수수료 인하를 주축으로 하는 경기 부양책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세와 수수료 인하 규모는 2018년 당초 1조1000억 위안에서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조5000억 위안 규모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2018년 2.6%에서 상향할 방침이다.

공공 투자도 대폭 늘린다. 지방정부가 인프라 건설에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규모를 2018년 1조3500억 위안에서 60% 정도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예년에는 3월부터 시작되던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을 올해에는 1월로 앞당겼다. 지방정부가 자금 부족에 빠져 인프라 건설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정책은 지난해 전인대 때보다 완화적인 자세를 강조할 전망이다. 특히, 민간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

감세·수수료 인하 규모 확대

1.1兆 위안 → 1.5兆 위안 전망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상향

공공 인프라 채권 발행 60% ↑

외국인 투자법 입법

美 기술 이전 의무화 우려 반영

행정수단 총동원 법안 통과 속도

미국과의 무역 마찰에 대한 대응도 관심의 초점이다. 미국은 원래 3월 1일 20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릴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이를 연기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2018년 9월부터 관세율을 높인 중국 제품에 물리는 관세를 추가로 올리지 않고, 현행 관세율 10%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와 별도로(중국에) 통보해왔다"며 "미국 측의 위와 같은 조치를 환영한다"고 반겼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에 부응해 중국은 이번 전인대에서 2018년 12월 초에 초안을 발표한 외국인투자법을 서둘러 성립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중국이 행정 수단을 이용해 외국계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담았다. 기술 이전 의무화에 대해 우려하는 미국을 배려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미·중 무역협상이 대단원을 맞이하는 가운데 이례적인 속도로 법안을 성립시키므로써 미국에 양보 의사를 어필할 의향이다.

중국 국정자문기구인 정치협상회의의 귀웨이민 대변인은 2일 전인대 개막에 앞선 브리핑에서 미국과의 무역 문제를 둘러싼 협상에 대해 "다양한 문제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가능한 한 빨리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세계 경제에 있어서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2018년 3월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에서 인민 대표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중국 GDP 추이 (단위: %, 전년비)



베이징=신화/뉴시스

‘희색 코벨소’ 덮칠라... 표정 어두운 시진핑

올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경제 문제에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시진핑 지도부가 미래에 대해 강한 불안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언론이 “중국 경제는 양호하다”고 입을 모을 때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희색 코벨소’라 불리는 중국의 과도한 부채 문제가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는 이유에서다.

“90조 위안 돌파, 중국 경제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2018년 중국 국내총생산(GDP) 통계가 발표된 다음 날인 1월 22일, 중국 관영 인민일보는 1면에 이같이 대서특필했다. 경제성장률(전년비 6.6%)이 1990년 이후 28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한 사실은 언급하지도 않았다. 당 중앙선전부는 작년 가을에 “경기 둔화를 나타내는 수치를 보도해선 안 된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한다. 조금이라도 경기 부진을 암시하는 기사를 쓰면 당국의 지도를 받는다.

중국에서 희색 코벨소는 인민일보가 2017년 7월 사설에서 언급하면서 널리

경기 부양 돈 풀면 과잉 부채
긴축하자니 성장 저하 우려
전문가 “미묘한 상황 내몰려”

알려졌다. 그 바로 전에 시 주석은 5년에 한 번 열리는 ‘전국금융공작회의’에서 거액의 채무가 중국 경제를 잠먹고 있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인민일보는 부채 문제를 상징하는 단어로 ‘희색 코벨소’를 사용한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중국의 지방정부나 기업이 안고 있는 부채는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부채 잔고는 2013년 120조 위안에서 2018년 6월에는 약 220조 위안까지 불어났다. 시진핑 지도부는 2018년 초부터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지방과 기업에 돈을 대는 ‘그림자 은행’ 단속에 나섰다. 이것이 강력한 긴축 효과를 불러일으키면서 지방과 민영 기업에 순식간에 돈이 말랐다.

시진핑 지도부가 당황한 것은 물론이다. 중국 정부는 즉시 감세와 인프라 투

자에만 2조5000억 위안 이상의 경기부양책을 결정했다. 또 작년 12월에는 “은근한 중립 통화 정책을 지속하겠다”며 기존 방침에서 “중립”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이 모든 것이 희색 코벨소를 경계한 데 따른 조치였다. 시 주석은 경기 부양 차원에서 다시 자금을 풀면 과잉 부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경기는 양호하다”고 강조하며 희색 코벨소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호소한 것이다.

2008년 가을 리먼 사태 발발 당시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당시 후진타오 지도부는 금융 정책을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하고 4조 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책에 자금을 쏟아부었다. 이것이 현재 부채 문제의 시발점이 됐지만 경제 둔화를 막은 것은 확실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시진핑 정부는 희색 코벨소가 날뛰는 걸 억제하면서 경기 부양책을 궤도에 올려야 하는 미묘한 상황에 내몰렸다”며 “1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배수경 기자 sue6870@

가볍고 강력한 3D CAD!
ZW3D 만의 강점은?

국내 주요 대기업 및 공공 기관의 검증 완료

CAD와 CAM이 결합된 All-in-one 솔루션

강력한 '어셈블리 디자인'

카티아, UG-NX, 솔리드웍스 등
3D 데이터 포맷 완벽 호환

QuickMill 기술을 활용한
쉽고 빠른 가공 물패스 성

ZWCAD KOREA
TEL | 02.515.5043
www.zwsoft.co.kr

그들은 왜
ZW3D를
선택했을까?

ZW3D
All-in-one, Affordable CAD/CAM

친문 대거 총선 출마... 집권 후반기 안정적 국정동력 확보

文 대통령, 이번주 개각

박상기 법무 장관은 유임 가닥 정치기반 강화해 레임덕 차단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2기 내각 인사를 단행해 임기 3년차 국정을 다잡는다. 특히 집권 후반기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친문(친문재인)·신진문 인사를 내년 4월 총선에 대거 출마시켜 안정적인 정치기반을 마련하려는 포석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애초 정치권에서 2월로 예상했던 2기 내각 구성은 북미 정상회담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등 대내외 현안이 터지면서 3월로 늦춰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교체를 요구했던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대해 문 대통령이 유임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후임자로 유력하게 거론돼 온 박영선 의원의 입각 문제가 꼬였다는 얘기도 들린다. 문 대통령은 박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경제 활력의 가장 핵심 주체로 보는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와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 사업에 대비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이상호 의원,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도 남북 경협 등 남북 관계 진전에 적극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권은 해석한다. 지난달 28일 김현중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에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 몸담았던 친문

혹은 신진문 인사들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대거 당으로 복귀함에 따라 여권의 무게 중심이 당으로 옮겨가게 됐다. 내년 총선 이후 예상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 약화를 차단하겠다는 여권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문 대통령의 '누과 귀'가 대거 민주당에 복귀해 안정적인 정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정동력을 집권 후반기까지 이어가겠다는 포석이다. 김부겸 행정안전·김현미 국토교통·김영춘 해양수산·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당에 복귀해 4월 총선에 나선다. 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남요원 전 문화비서관, 권혁기 전 춘추관장 등도 4월 총선 준비를 위해 지난달 18일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한 상태다.

이와 함께 청와대가 4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 대사 인사를 단행하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주중대사에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일대사에 남관표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주오스트리아 대사에 이상철 전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을 낙점한 것은 문 대통령이 계속 측근들을 중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헌신해 온 분들이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오고 그 어느 정부보다도 큰 결실을 맺은 분들”이라며 “언제 어느 자리에 어떻게 갈지 장담할 수 없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크게 쓰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노딜 북미 회담’에... 文 대통령 중재자 역할 고심

北美, 결렬 책임 진실공방 ‘신한반도체제’ 구상도 차질 이달 중 트럼프와 회동 추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성공적 북미 회담을 전제로 ‘신한반도체제’를 구상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커졌다.

북미 회담 결렬로 당분간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등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과 북한이 ‘영변의 우리농 농축사살’과 ‘대북제재 해제 범위’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는 등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다.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지만, 미국과 북한의 가이

드라인이 명확하게 나온 상황이라 중재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 청와대는 여러 채널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양측의 구체적 내용과 입장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먼저 이번 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 북한과도 여러 채널을 통해 북미 회담의 내용 공유와 비핵화 문제, 작업, 남북경협 수위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달 중순 이후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회담 결과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여부도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북미 회담이 결렬된 만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북미 관계에 어설픈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다가 살얼음판을 깔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히 접근해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사에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밝히면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북한 달래기에도 나섰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남북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청사진도 제시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제암리 찾은 이 총리 이낙연(오른쪽 세 번째) 국무총리가 2일 경기 화성시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지를 방문해 '34번째 민족대표'로 불리는 스코필드 박사의 업적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안한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 뒷받침 차원” ‘동맹’으로 바꿔 소규모 훈련 대체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Key Resolve)연습과 독수리훈련(FE:Foal Eagle)이 올해부터 사라진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새너한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은 2일 밤 전화통화를 하고 키리졸브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긴장 완화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KR연습과 FE훈련은 을지프리트탑가디언(UFG)연습과 함께 한미 양국 군대가 참여하는 3대 연합훈련으로 꼽힌다. 키리졸브연습은 한미 연합군사령부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워게임(War Games)이다. 독수리훈련은 우리 군과 주

한미군이 공동으로 후방지역 방어 작전과 주요 지휘 통제 및 통신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야외기동훈련이다.

키리졸브연습은 우리말 ‘동맹’이라는 이름의 소규모 훈련으로 대체된다. 이에 따라 KR연습은 2007년 명칭을 변경해 2008년 처음 시행한 지 1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독수리훈련은 1975년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된 지 44년 만에 명칭이 바뀌게 됐다. 새 훈련은 독수리훈련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연중 대대급 이하의 조정된 야외기동훈련으로 진행된다.

일각에서는 연합방위태세 역량은 연합훈련에 좌우되는 만큼 훈련이 축소되면 방위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돈 문제를 거론하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런 만큼 연합훈련 폐지가 향후 주한미군 감축 논의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충현 기자 lamuziq@

Lifepius

당신의 모든 순간에
가족 모두의 순간에
한화손해보험이 함께합니다
더 나은 나를 찾을 수 있게
가족의 행복을 더 지킬 수 있게

더 잘 살기 위해
Life as a service

한화손해보험

Lifepius 광고모델 이병헌

가족을 지키는 모든 방법

전가족보험
완전보장

〈지난해 11월 발표〉

유턴기업 지원책에도 대기업 '0'... 中소만 5곳 복귀

감세 혜택, 대기업에 안 통해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 위한
맞춤형 유턴기업 지원책 필요”

지난해 11월 정부의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발표 이후 5개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거나 복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기업 모두 중소기업이었다. 여전히 대기업은 하나도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3일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이 발표된 이후 3개 기업

이 국내로 복귀했으며, 2개 기업이 국내 복귀를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유턴기업 수가 10곳이란 점을 감안할 때 대책 발표 이후 유턴기업 수(신청 포함)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3년 12월 유턴법을 제정해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하던 제조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해외 생산제품과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증설하는 유턴기업에 보조금·세제 등 혜택을 줬다. 유턴법 시행 이후 작년 11월까

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 수는 총 51개였다. 이에 정부는 유턴기업 확대를 위해 유턴기업 범위와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작년 11월 발표했다. 대책 발표 이후 5개 기업(신청 포함)이 국내로 복귀한 것은 정부의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는 셈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5개 기업(기계·차 부품 등 영위) 모두 중소기업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유턴법' 시행 이후 전무한 해외 진출 대기업의 국내 유턴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기업의 국내 복귀는

국내 투자·생산 및 고용 촉진 효과가 커서다. 이를 위해 국내 복귀를 원하는 대기업에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후 복귀 시에만 적용했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중소·중견기업과 동일하게 해외 사업장 '축소' 후 복귀 시에도 부여하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결과는 실망스럽다. 일각에서는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 진출 대기업이 전무한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해외에 생산설비를 구축한 대기업들이 정부의 세금 감면 혜택 때문에 국내로 복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이익 창출 면에서 국내보다 인건비 등이 저렴한 해외시장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과 공정거래법 개정 등 과도한 규제도 대기업 유턴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김혁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기업들의 유턴 수요를 파악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줄 기업을 찾아 이들 기업에 맞춤형 지원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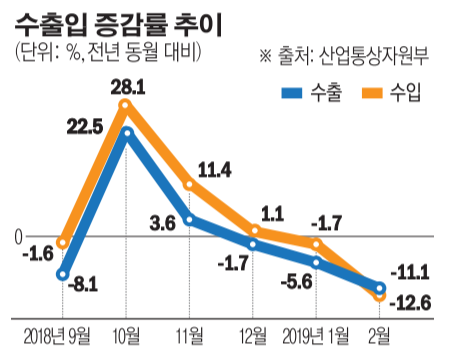


다시 오르는 휘발유 가격 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2당 1349.17원, 서울은 1450.7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 한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표. 연합뉴스

석달 연속 내려앉은 수출 반도체 24.8% 급감 '비상'

2월 수출 작년보다 11.1% 감소... 中 경기 둔화 등 직격탄

수출이 석 달 연속 하향곡선을 그렸다. 반도체가 24.8% 감소하는 등 주력 품목도 대부분 부진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19년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수출액은 395억6000만 달러다. 지난해 같은 달(445억2400만 달러)에 비해 11.1% 줄었다. 월간 수출 성적(전년 동월 대비)이 악화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석 달째다. 수출 감소 폭도 12월 1.3%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 산업부는 반도체 가격 하락과 중국 경기 둔화, 설 연휴를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연휴로 줄어든 조업일수 차이가 0.5일에 불과하다. 연휴 효과를 배제한 하루(日) 평균 수출액도 20억8200만 달러로 지난해(22만8300만 달러)보다 8.8% 줄었다. 13대 수출 주력 품목(반도체, 일반기계, 자동차, 선박, 석유화학, 무선통신기기, 석유 제품, 철강, 평판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섬유류, 가전, 컴퓨터) 중 기계와 자동차, 철강을 제외한 10개 품목의 수출 실적이 뒷걸음질쳤다. 반도체는 67억7300만 달러로 지난해(90억400만 달러)보다 24.8% 급감했다. 스마트폰과 데이터 센터 등 수요가 줄어든 데다 수출 단가가 낮아져서다. 지난해 2월과 비교해 8기가 D램 반도체 가격은 9.3달러에서 5.8달러로 25.4% 떨어졌다.



다만 산업부는 올 하반기 반도체 공급 과잉이 해소되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출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석유제품(28억5500만 달러)과 석유화학(34억8700만 달러) 수출액도 각각 14.0%, 14.3% 줄었다. 유가 하락은 멈춰 있지만 미국이 공급을 늘리면서 수출 단가가 하락한 탓이다. 지난해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은 고유가에 힘입어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거뒀다. 수출 지역별로는 대중(對中) 수출액이 지난해 115억2000만 달러에서 95억2000만 달러로 17.4% 급감했다. 아세안(73억5000만 달러)과 EU(40억3000만 달러) 수출도 1년 전보다 각각 3.2%, 8.5% 감소했다. 지난달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6% 줄어든 364억6600만 달러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30억9800만 달러 흑자로 8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잘나가는 한은 정책보좌관... 승진 빠르고 요직 꺾차

한국은행 정책보좌관은 그야말로 잘나가는 자리다. 주요 인사 때마다 역대 정책보좌관들이 줄줄이 승진은 물론 주요 보직을 꺾차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친정 체제를 공고히 하는 포석이기도 하다. 지난달 28일 한은은 신운(사진 왼쪽) 금융안정국장을 경제연구원장으로, 민좌홍(오른쪽) 금융결제국장을 금융안정국장으로 이동시킨 데 이어, 임철재(가운데) 금융결제국 부국장을 금융결제국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는 지난달 말 손욱 경제연구원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이뤄진 인사다. 한은은 14년 만에 경제연구원장을 내부 직원으로 보임한 배경으로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변화가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이론적·학술적 연구 외에도 다양한 경제 현안을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 선임 원장은 김중수 전 총재 시절 발탁돼 이 총재 취임 초까지 조사국장을 역임했다. 경제학 박사로서 경제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전문성을 인정



경제연구원장에 신운 발탁
14년 만에 내부인사 주목
금융안정국장에 민좌홍
금융결제국장에 임철재 임명

받았지만, 조사국장 시절 한은의 물가 전망 등이 크게 어긋나면서 입지가 줄었다. 이 총재는 조사 역량 강화를 이유로 외부인사인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을 조사국장에 앉혔고, 신운 당시 국장은 중국 북경사무소장으로 보냈다. 이후 이 총재의 1차 임기 말이었다던 2017년 10월 금융안정국장으로 복귀했다. 민 선임 국장은 지난해 2월 기획재정부와의 국장급 인사 교류로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으로 갔다 복귀하면서 5대 정책보좌관이 됐다. 이후 불과 4개월 만인 그해 6월 금융결제국장을 맡은 데 이

어, 8개월 만에 한은의 멘데이트(mandate·책무) 중 하나인 금융안정국장을 맡게 됐다. 임 선임 국장은 민 국장보다 앞서 3대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다. 정책보좌관 재임 시절이던 2017년 7월 1급으로 승진했다. 정책보좌관은 이 총재 취임 직후인 2014년 상반기 신설된 자리다. 총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각종 연설문 등 총재의 대외활동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 초대 정책보좌관이었던 신호순 부총재보는 정책보좌관에 이어 금융시장국장, 금융안정국장 등 요직을 거쳐 2017년 9월 임원이 됐다. 2대 정책보좌관은 현재 한은 핵심국인 통화정책국을 맡고 있는 박종석 국장이다. 박 국장은 부총재보 물망에 올라 있다. 4대 정책보좌관은 이상형 금융시장국장이 맡았었다. 커뮤니케이션 국장인 이종식 국장도 민 국장과 공동으로 5대 정책보좌관에 오른 홍경식 보좌관도 올 1월 말 인사에서 1급으로 승진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60달러 중반 국제유가 더 오르면 힘들 것”

한은, 수요 둔화 등 상승 제한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면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3일 한국은행은 2월 중 60달러 중반까지 올랐던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1월 말 배럴당 61.4달러를 보였던 국제유가는 2월 말 60달러 중반 수준까지 올랐다. 2월 1일부터 26일 기간 중 두바이유는 전월 대비 8.8% 상승했다.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등 주요 산유국의 감산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OPEC의 1월 중 감산이 행률이 86%에 이르고, 사우디가 3월 중 감산목표치를 322만 배럴을 제시하는 등 주요 산유국들의 추가 감산계획 발표도 이어졌다. 여기에 지난달 28일 미국이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PDVSA)에 금융 제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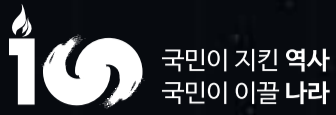
부과하면서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 전망도 영향을 미쳤다. 에너지 컨설팅 회사 플라츠(Platts)는 5일 이 같은 조치로 2월 베네수엘라의 대미 원유 수출이 전년 평균치 50만 배럴의 60% 수준인 30만 배럴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세계성장을 하락 등에 따른 수요 둔화와 미 원유 생산량 증가 등은 상승폭을 제한할 것이라 관측이다. 실제 세계적 시장분석회사인 IHS는 20일 올해 중 글로벌 원유수요 전망치를 일평균 145만 배럴로 종전 전망 대비 7만 배럴 하향 조정할 바 있다. 미 에너지 정보청(EIA)도 2월 셋째 주 미국 원유생산량을 일평균 1200만 배럴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한은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폭을 제한하는 요인들이 있다. 국제유가가 큰 변동을 보이긴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 42년 만에 4000명 이하로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976년 이후 처음으로 4000명 이하로 떨어졌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2018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7년(4185명)에 비해 9.7% 감소한 3781명으로 6년 연속 감소를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000명대에 진입한 것은 1976년 3860명 이후 처음이다. 사

고 건수는 21만7148건으로 2017년(21만6335건)과 비교해 0.4%(813건) 증가했다. 부상자도 32만3036명으로 2017년(32만2829명)과 비교해 0.1%(207명) 늘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보행 중 사고 때가 39.3%(1487명)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중 35.5%(1341명), 이륜차 승차 중

19.5%(739명), 자전거 승차 중 5.5%(207명) 순이었다. 다만 보행 사망자 비중(2016년 기준 39.9%)은 OECD 국가 평균(19.7%)과 비교해 2배가량 높았다.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2016년 기준)도 OECD 평균인 1.1명이지만 우리나라는 3.3명에 달했다. 65세 이상 사망자는 1682명으로 4.8%(85명) 감소했지만, 비중은 56.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최익형 김학설 차병희 김태원
문석봉 유동하 정준서 최현배
박영준 유석현 김도현 채기중
고광순 방승희 박 결 김태오
최병호 송병순 이원직 권석도
구연영 최중호 김지환 김창환
이학순 차병희 정인순 이대근
김병록 정준서 김석창 정서순
금기철 김도현 김관오 이재운
서의배 박 결 윤세주 신창룡
조윤하 이원직 이 준 윤세복
김진준 김지환 이충증 최도환
진희창 정인승 이관석 여행열
연병호 김석창 박찬익 박상진
김정원 김관오 이명상 김상덕
유장원 윤세주 이세영 주명우
이 설 여 준 이유필 문삼익
주석환 이충증 문일평 권기운
이종건 이관석 김이원 최지관
권재택 박찬익 김태원 한 훈
김중현 이명상 양우조 유해준
홍준우 이세영 김한수 이병직
천병림 이유필 고운기 정철화
최육영 문일평 유영규 백시찬
신태식 김이직 오성술 신발근
이희삼 김태원 최천호 최용덕
김덕재 김학설 유홍수 아규창
김진성 유동하 정순경 박시화
이희정 유석현 이시영 장봉환
조정인 방승희 홍석호 이종수
문인민 송병순 윤인석 홍종남
안국형 최중호 김준택 민영구



양윤숙 신건식 김명권 한상별
선우혁 김시중 유득신 계동우
최세윤 지석용 김 강 이희영
이광민 홍사구 김승곤 김보형
최병수 정태희 유기동 윤창하
김 호 광중규 임의환 모의리
최시훈 김순애 김홍일 조지영
남석익 박인항 박문용 문창환
이재모 김태원 박도경 최양욱
정동식 전용선 양기하 김평식
이상정 장진홍 안 무 신덕영
조인제 영주필 이용담 나월환
고인덕 현 순 천세현 채 찬
이능권 서중재 현정권 임병근
최창식 김중대 남정각 이광세
이종욱 김 구 박태열 강창재
송계백 정이형 이숙길 비오생
조창선 채세용 이민하 이의준
최수봉 강우경 조용하 이진택
이진우 민용호 이명순 심용준
강기운 정용대 안경신 임병직
장인호 정인규 이강신 안중근
박용백 고창일 오의선 윤세용
이희의 백유한 신 숙 허 빈
조병오 이화일 양경학 강순필
김우근 이종연 노을름 송현주
강영규 김기현 김준승 허 위
황학봉 서상고 이 강 김낙용
임창모 김기형 전덕령 임하중
이강년 이형우 최규동 손덕오
나시윤 우승창 김치홍 황병학
민효식 김철남 조만식 김병조



김경운 윤병구 노종균 이필봉
이관직 신우현 양승우 노복선
김봉학 이규갑 전덕원 채 영
황창오 양환규 최영길 함태영
신창룡 이소영 민필승 유화순
김일원 이은영 장태수 이희승
여순근 유민식 장태희 이명하
이상만 전좌환 백정기 한성구
윤인순 강경선 윤 해 김용구
신인성 김동진 권영만 권용일
이충영 안운성 남중선 현창경
정우경 장지연 민양기 이정봉
이 기 신언준 김대지 이중봉
김규식 이수홍 강철구 김좌진
남궁익 양근환 박승길 변춘식
이승만 박재택 이봉희 오광삼
순영각 이승훈 홍찬선 노병대
장철호 이상화 김석환 오상서
전치연 고두환 이성규 이석이
곽태기 윤이병 안경호 이영준
김진택 신승식 김수민 서상훈
이중용 백낙주 박시화 김성숙
김덕순 노임수 조진택 이희은
김승만 조창호 서영석 양세동
유운홍 이봉우 한용운 장두환
김덕홍 김상우 장해평 임용상
최소양 오연희 임성우 박희광
조소양 문운국 윤봉길 조병두
김도원 장두환 강창호 오상원
최관용 나정구 강윤희 박인호
백남규 한봉수 유상근 이진섭
조종대 우동선 태양욱 이종암



장덕준 조창룡 조원세 김두만
김광진 안희제 홍 진 강원삼
김근희 신정백 조병옥 강원형
이만도 이애라 황준성 박경순
신석우 차희식 엄소성 박경순
김약연 이종진 최일연 김이걸
이종희 김성연 이종연 차병재
홍원식 장 형 김의환 이종희
양기택 박문용 고 평 홍춘희
장진원 이종호 장영희 이명근
성인환 박여성 순병희 윤신은
김용성 홍 언 김일식 김봉식
장윤덕 김동수 신공재 최이봉
김창숙 정태진 최용선 김원범
김원국 이광복 김성진 한정만
유 립 김영현 김 석 이창덕
이흥관 김관보 서재필 이광호
김원식 이흥서 최익룡 주기철
김원규 이흥선 최익룡 주기철
한규준 유관순 지용기 김태량
권인규 나형현 박건순 김태원
김명철 석동철 채용현 강재하
최은식 임병한 김병대 이만두
김창국 박기성 안광근 이기승
한봉근 한상호 정봉준 신익희
나중소 안창호 백일규 김덕삼
김영원 김이섭 서상용 최화암
기우만 유성삼 객재기 고이허
안영근 이규선 이종진 최성천
김수곡 안봉순 박기재 최기선
기삼연 전덕기 최석준 원삼창
조병세 이명서 이인근 신현규



유도발 조길룡 차병수 이기순
김대규 원세훈 유병기 이현규
박중서 이성우 강진원 박세화
송주면 정관주 김 혁 이진영
김영만 임봉주 노태준 장소진
심남일 송학선 이종희 염은주
이성화 윤병기 이 현 이희주
윤상원 유인식 김재근 서원준
김 최 한이경 김승배 김학규
이순모 이항구 이상룡 김창근
김성택 이교영 김원호 이 갑
김용재 김진만 이우식 손창숙
이철형 이 광 황덕환 문창숙
윤준희 조희선 이원배 박인화
조도선 변희기 안원규 노기용
김한중 안세환 김만수 우덕순
백기환 이병호 박치의 정용기
김성호 최 해 오봉원 서상환
오강표 주병용 전학수 김상태
김성호 최 해 오봉원 서상환
조명하 차원모 이대원 김인진
황재은 김원범 최나현 채광목
이규재 황병길 구에서 정봉화
강기덕 민중로 현익철 정천조
오동진 이 탁 서 일 김석진
김태원 이강훈 나병삼 송병조
최익현 홍민식 추삼만 김병우
홍성용 장덕진 조인환 이병화
정남용 박운실 안승우 이교재
권순영 안재환 신우여 김 훈
김교희 안지호 송종익 홍병식
장현성 김치보 영형섭 윤덕보
김창규 유영오 유시연 이항룡

1919



2019

100년을 이어주는 영웅들의 이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2019년은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째 되는 해입니다

100년이라는 긴 시간으로도 지울 수 없는 역사의 **메모리**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모든 분들에 대한 기억을
국민 모두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강달러가 문제”... 트럼프, 또 연준 때리기

2차 북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 정책을 또 비판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옥스힐 게일로드 내셔널리조트에서 열린 공화당 연례행사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2019’에 참석해 “미국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걸림돌이 있다”면서 연준을 걸고 넘어졌다. 트럼프는 “연준에는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좋아하는 양반이 있다”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꼬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1년간의 기준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없었다면 지금 어땠을지 생각해보라”며 “아마 달러는 지금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기업 거래를 방해하는 달러를 원하지 않는다. 미국에 바람직한 수준의 달러를 원한다”며 달러 강세가 미국의 경제 성장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올해 두 차례로 예정된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보류하고 금리를 현행 2.25~2.50%로 동결했다. 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2019’에서 연설하고 있다. AP뉴스

‘복핵 담판 결렬’ 호의적 여론 일자 의기양양
“긴축 좋아하는 양반 美성장 방해” 파월 비난

난달 26일 열린 상원 은행위원회 증언에서 파월 의장은 “당분간 금융 정책 변경에 강한 인내심을 갖겠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또 그는 “보유자산 축소 정책의 세부사항을 경제·금융에 맞춰 조정할 것”이라며 “보유자산 축소 정책을 마무리할 적절한 시점과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다.

CNBC는 “트럼프가 연준을 비판한 것은 통화 정책에서 더 이상의 변화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며 “한동안 잠잠했던 트럼프의 연준 견제가 다시 시작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차 연준 비판에 나선 것은 미국 내 혼란이 다소 수그러들며 기를 펴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 CNBC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 참석차 베트남에 있는 동안,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의 의회 폭로, 야당인 민주당의 비상사태 선포 무력화 결의안 하원 통과 등으로 사실상 궁지에 몰린 상태였다. 그러나 친정인 공화당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핵 담판 결렬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세우자 기세가 등등해진

모습이다. CNBC는 “어깨를 편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연준을 향해 비판의 잣대를 들이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연준이 미쳤다”며 “연준이 우리 경제의 유일한 문제”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FOMC 회의 바로 전날에는 트위터에 “금리 인상을 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다. 강현수 기자 hyeonsu95@

“샤넬 짝퉁, 샤넬이 없애라” 손 안 대고 코 푸는 아마존

해당 브랜드에 모조품 삭제권 부여

모조품 퇴출에 고심하던 아마존닷컴이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내놨다. 자사 사이트에 올라온 모조품을 해당 브랜드를 소유한 업체가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책을 탈피해 책임 일부를 업체에 넘긴 모습이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아마존은 ‘프로젝트 제로’라는 새로운 모조품 백신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브랜드 측은 아마존에 별도의 보고 절차 없이 삭제 대상을 클릭하기만 하면 퇴출할 수 있다. 아마존은 15개사와 수개월에 걸쳐 이 프로그램을 시험해 왔으며, 이번에 업체를 몇 개 더 추가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프로젝트 제로의 일환으로 브랜드들은 상품 단위별로 별도의 코드를 작성, 해당 코드를 기존 패키지에 인쇄하거나 각 상품에 부착할 수 있다. 상품이 아마존의 창고에 들어오면 코드를 읽어들이어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자동으로 출품 사이트를 스캔해 의심이 가는 제품을 미리 차단해 삭제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WSJ는 이처럼 모니터링 책임과 권한의 일부를 브랜드 측에 넘기는 것은 업계에선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기술(IT) 업체들은 외부 업체의 도움을 받아 플랫폼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사용자에게 직접 콘텐츠를 삭제하게 하진 않는다. 아마존처럼 모조품으로 골머리를 앓아온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경우, 블랙 리스트를 만들어 공개하긴 했지만 삭제권을 브랜드에 주진 않았다. 그동안 아마존은 모조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이 있으면 브랜드 쪽에서 사내 담당 팀으로 보고, 조사를 한 뒤 삭제할지 여부를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브랜드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많은 브랜드들이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특정 상품을 아마존에 내놓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권력을 남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배수경 기자 sue6870@

미키타니-손정의 싸움 된 ‘리프트 vs 우버’

〈리쿠텐 창업자〉 〈소프트뱅크 회장〉

日 투자거물 ‘차량공유’ 대리전

미국 2위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리프트가 선두주자인 우버보다 먼저 미국 나스닥시장에 기업공개(IPO)를 신청해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일본 두 투자 거물의 물밑 경쟁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일본 전자상거래업체 리쿠텐 창업자 미키타니 히로시 회장은 리프트 지분 13%,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은 우버 지분을 15% 각각 보유 중이다



미키타니 히로시



손정의

고 미국 CNBC 방송은 전했다. CNBC는 “리프트가 우버에 한 방을 먹이면서 미키타니와 손정의 두 최대 주주는 차량공유 시장에서 흥미진진

한 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중 가장 먼저 증시에 데뷔하는 리프트는 2012년부터 서비스를 시작, 현재 미국 내 39%의 점유율을 가진 2위 차량공유서비스 업체로 성장했다. 리프트는 작년 말 1100만 명의 기사와 1억8600만 명의 탑승자를 보유하고 있다. 틸레시장을 노린 미키타니 회장은 2015년 리프트에 3억 달러(약 3372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투자

발표회에서 그는 “리프트에서 미래를 보았다. 리프트와 같은 기업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잠재력을 일깨워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CNBC는 “우버에 약 100억 달러를 투자한 손정의 회장과 비교하기엔 이르다”면서도 “리프트가 먼저 IPO를 실시하는 만큼 언제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분석했다. 리프트는 ‘LYFT’라는 심볼로 나스닥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JP모건체이스, 크레디트스위스, 제프리스파이낸셜그룹 등이 주간사로 선정됐다. 강현수 기자 hyeonsu95@

하 소

조운해 前 고려병원 이사장께서
2019년 3월 1일 오후 2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빈 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영결식 2019년 3월 6일 오전 8시
발인 2019년 3월 6일 오전 8시 30분
삼성서울병원 영결식장

- 아들 조동현 동만 동길 손자 현준 현승 성민 나영
- 딸 옥형 자형 손녀 현주 희주 은정 성진
- 사위 권대규 이명성 안영주 외손녀 권애영 권이주
- 외손녀 김정현 이진상 이준석 박지영 한경록
- 손녀사위 김정현 이진상 이준석 박지영 한경록

호상 류복기

* 조화 및 조의금은 정중히 사절합니다. 연락처 02)3410-6917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가요?

잠을 깨도 못 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면
아침에 건설펀 일어나려한 오전 내내 정신이 멍하다면
어플림으로 나가는 게 싫어서 이불 속에서 계속 버티고 있다면

1. 알람부터 바꿔봐
2. 샤워부터 바꿔봐
3. 햇빛을 쬐고 일어나봐

그렇다면 수면 전문가 박지영은 어떻게 생애를 바꾸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나도 아침에 일어나고 싶었다

박지영

2019년 3월 1일

“화웨이 장비 안 쓰면... 개똥” 이미지 싸움에서 판정승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중국 화웨이 테크놀로지가 미국의 거센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설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화웨이를 차세대 이동통신망인 5G 시장에서 퇴출시키려는 영국과 독일, 뉴질랜드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의 압박에 반기를 든 것이다. 화웨이는 지난주 막을 내린 세계 최대 통신 박람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9’와 기발한 광고 캠페인 등을 통해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고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지난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MWC에서 화웨이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하려 했다. MWC에 모인 10만 명이 넘는 통신업계 관계자들에게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하고자 대규모 대표단을 보낸 것이다. 아지트 파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에는 국무부와 국방부, 상무부 등의 고위 관리들이 대거 포함됐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가 중국 정부를 위해 외국 통신망에 백도어(우회통로)를 몰래 설치해 스파이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트럼프 정권은 동맹국들이 5G 네트워크에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이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했음에도 오히려 화웨이는 MWC에서 미국 동맹국과 새로운 거래를 성사시켰다. 화웨이는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이동통신사인 에티살라트에 5G 기지국 300개를 제공한

美 MWC서 동맹국 단속 나서
화웨이, 광고로 분위기 반전

“우리 없다면 럭비 없는 뉴질랜드”
“베를린, 5G 아닌 개똥만 늘어”
특화광고로 비호감·안보 우려 불식

유럽 이어 중동도 中 장비 채택
中 기술력 인정하며 속속 이탈

다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WSJ는 중동에서 가장 주요한 동맹국인 UAE가 미국에 등을 돌렸다고 평가했다.

화웨이는 MWC의 주요 스폰서를 오랫동안 맡아왔으며 부스는 전시장 내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귀퉁이 화웨이 순번 회장은 MWC 개막에 앞서 바르셀로나의 고급 호텔에서 미국 언론들과 1시간 넘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사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이미 미국은 유럽에서 화웨이 배제를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독일은 5G망 부설 프로젝트에 화웨이 참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영국 정보당국은 화웨이 장비를 쓰더라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뉴질랜드도 지난달 화웨이를 완전히 퇴출시킨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바꿨다.

화웨이 측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체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월 27일(현지시간)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박람회 기간 참관객들이 화웨이 부스 앞을 지나가고 있다. 바르셀로나/로이터연합뉴스



↑ 뉴질랜드에서 최근 전개된 화웨이 광고

← 독일 베를린의 테겔국제공항에 “베를린에서 앞으로 더 확산될 것은 5G인가 아니면 ‘개똥’인가”라고 쓰인 화웨이 광고가 크게 걸려 있다.

한 5G 관련 계약 30건 중 18건을 유럽이, 9건은 중동, 3건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각각 차지하고 있다. 특히 화웨이가 최근 5G 계약을 체결한 곳 중 하나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의 LG유플러스라고 WSJ는 지적했다.

또 화웨이는 뉴질랜드와 독일 등에서 잇따라 광고를 내보내 이미지 제고에 나섰다. 화웨이는 안보 우려를 직접적으로 완화시키기보다는 기술력을 뽐내 자사 제품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전략을 쓰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지난달 신문 전면광고와 옥외 광고판 등을 이용해 대규모 광고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광고에서 화웨이는 뉴질랜드에서 매우 인기 있는 럭비 대표팀을 예로 들면서 “화웨이가 없는 5G는 뉴질랜드가 없는 럭비와 같다”고 주장했다.

독일 수도 베를린의 테겔 국제공항에서는 지난해 말 화웨이 장비가 통신 속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광고판이 세워졌다. 이 광고의 캐치프레이즈는 “베를린에서 앞으로 더 확산될 것은 5G인가 아니면 ‘개똥’인가”로 매우 도발적이었다. 독일 일간지 빌트는 화웨이 광고가 베를린을 조롱했다고 발끈하는 반

응을 보이기도 했다.

화웨이는 이전에 주로 스마트폰의 지명도를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마케팅에 거액을 투자했다. 스캇트 요한슨과 겔 가드 등 할리우드 유명 배우를 기용한 광고를 내보내고 국제공항에 광고판을 설치했다.

더 나아가 화웨이는 최근 광고를 통해 자사에 대한 비호의적 시선에 정면으로 맞서려 한다. 럭비를 이용한 뉴질랜드 광고는 세계적 광고회사 오길비엔매더 홍콩 사무소에서 제작했다. 화웨이는 이 광고가 유럽에서의 축구, 인도의 크리켓 등 스포츠를 활용해 시장 확대를 꾀한다는 자사 마케팅 전략에 들어맞는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베를린의 ‘개똥’ 광고는 현지 광고업체를 고용해 처음으로 독일에 특화된 광고 캠페인을 펼친 것이다. 화웨이 본사에서 직접 직원을 파견해 해당 광고가 베를린에서 화제가 될 수 있을지 등을 조사했다. 이 직원은 광고 캠페인이 성공할 것으로 확신했다.

뉴질랜드와 독일 모두 최근 화웨이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경기둔화·비판여론... 트럼프 ‘자충수’ “美 없어도 괜찮아” 런정페이 ‘자신감’

미·중 무역협상 시한이 연장되면서 세계 경제가 한숨을 놓은 상태다. 협상 결렬 시 미국은 중국에 25% 관세폭탄을 예고한 상태였다. 그 후폭풍에 대한 우려로 세계 경제는 둔화 조짐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협상 갈등을 이유로 세계 경제 전망치를 줄줄이 낮춰왔다.

미국과 중국이 걸로로는 크게 대립했지만 협상 결렬이라는 과국을 피해야만 하는 이유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 “나는 미국이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농업, 서비스, 통화 등 중요한 구조적 문제에 관한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이 같은 매우 생산적인 회담의 결과로 3월 1일로 예정된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을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도 같은 날 미국산 대두 1000만 t을 추가로 구입하기로 하면서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90여 일 이어온 미중 무역 갈등이 순조롭게 풀려가는 모양새이지만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타결을 목적으로 미국 법을 정치에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사법당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이유다.

트럼프는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에서 “무역 협정의 일환으로 중국 화웨이에 대한 기소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기자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주일 안에 그 모든 것을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화웨이에 대한 기소 취하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미국은 앞서 1월 명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대이란 제재 위반으로 기소하고 화웨이가 미국 통신사 T모바일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도 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제재 위반 및 허위 진술 혐의로 ZTE의 제품 판매를 금지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요청을 받아 금지령을 해제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이 미국 법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한데도 무역협상 진전을 이유로 이를 철회하는 것은 미국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동맹국과의 관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는 미국의 요청으로 지난해 명완저우 화웨이 CFO를 체포했다. 보석 상태인 명완저우 부회장에 대해 미국은 신병 인도를 공식적으로 요청, 결국 캐나다는 1일 명 CFO의 신병 인도 절차에 착수했다.

동맹국 미국을 위해 화웨이 설립자인 런정페이의 장녀를 전격 체포한 것은 캐나다에 큰 부담이다. 중국은 캐나다인들을 잇따라 구속하며 사실상 보복에 나섰다. 외신들은 동맹국을 외교적



명완저우(오른쪽)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지난해 12월 13일(현지시간) 경호원과 함께 밴쿠버의 한 보호관찰소로 향하고 있다. 밴쿠버/AP뉴스

으로 난처한 상황에 몰아넣었으면서도 트럼프가 변덕스럽게 중국에 ‘봐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웨이를 향한 견제와 유화적 제스처가 오락가락하는 사이 화웨이는 반격에 나서고 있다. 런정페이가 화웨이 회장은 지난달 18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명완저우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의도가 불순하다는 점을 공격한 것이다. 또 “미국은 결코 우리를

짓밟을 수 없다”며 “미국이 더 많은 국가들에 한시적으로나마 우리 제품을 쓰지 말라고 설득해도 우리는 언제든지 사업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서쪽에서 불이 꺼진다 하더라도 동쪽은 여전히 빛날 것이다. 북쪽이 어두워져도 남쪽은 아직 남아 있다”며 “미국은 세계를 대표하지 않는다. 미국은 세계의 일부만을 대표한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김영정 기자 0jung2@

‘스토킹 호스’ 성공 첫 사례... 두 번째 회생법원 졸업

기업회생 보고서 ① 한일건설

‘아수라장(阿修羅場)’.

회생법원의 첫인상이다. 내내 고개를 떨군 기업 대표와 한숨과 고성을 번갈아 내뿜는 주주들, 잠자코 절차를 따르는 채권단 관계자의 이해관계가 시공을 초월한다. 회생이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에서 희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깊은 좌절이다. 회생은 아득한 죽음의 기억이 가까스로 토해내는 낚시이다. 이투데이가 희망과 절망 사이 그 어디쯤에 놓인 회생기업들을 만난다. 그들에게 닦힌 위기와 그 이후 회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회생 이후의 모습을 남긴다. 이 기록이 지금 이곳에서 버티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에 ‘반면교사’이자 ‘참고서’인 동시에 미래를 위한 대비책이 되길 바란다.

2017년 3월 1일.

국내 최초의 ‘회생법원’이 등장한다. 그동안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법인·개인 파산이 잇따르면서 전담 법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2016년 말 법원조직법 등이 개정되면서 회생만을 담당하는 법원의 출범이 공식화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파산(破産)’이란 부정적인 어감을 대신해 ‘살아난다’는 의미가 강조된 회생(回生)이 선택됐다.

회생법원이 출범한 이틀 후인 3월 3일, 국내 건설사 하나가 이곳에 처음으로 회생 절차를 신청한다. 이날은 회생법원이 출범을 알리며 업무추진 방향을 공개한 날이다. 아직 회생법원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던 때다. 사실상 기존에 통용되던 법정관리 절차를 그대로 따랐던 것인데, 그 주인공은 공교롭게 앞서 한 차례 법정관리를 졸업한 ‘한일건설(대표이사 양승권)’이다.

◇건설업계 침체와 함께 찾아온 위기- ‘35위에서 119위로 추락’ = 한일건설은 1970년 2월에 설립된 삼원진흥건설이 전신이다. 1978년 한일시멘트가 건설업에 진

출하면서 이를 인수했고, 그해에 지금의 한일건설로 상호가 변경됐다. 한일건설은 토목과 건축, 아파트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두 차례의 법정관리를 들어가기 전 2008년 건설위키 기준 토건 시평액 35위까지 올랐던 주요 중견 건설사 중 하나였다.

2008년 이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국내 건설경기는 급격하게 악화한다. 공사 미수금이 늘면서 당시 중견건설 업체를 중심으로 만연했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화근이 됐다. 완공되지 못한 건물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채무가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러한 악재가 겹치며 2010년 6월 중산은행이 한일건설을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했고, 이때 한일건설에 대한 채권공공관리(워크아웃) 얘기가 흘러나왔다. 그러다 같은 해 10월 한일건설은 결국 주채권은행인 국민은행과 경영정상화 계획을 담은 이행 약정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워크아웃에 나서게 된다.

당시 건설사는 대개 워크아웃 이후 살아남지 못하고 법정관리로 가는 수순을 밟았다. 회생법원의 탄생도 이러한 우울한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 기존의 워크아웃

| 한일건설 순위* | | | |
|-------------|--------------|-------|------|
| 2010년 10월 | 워크아웃 돌입 | 2018년 | 81위 |
| 2013년 2월 | 1차 기업회생절차 신청 | 2017년 | 119위 |
| 2015년 4월 | 기업회생절차 졸업 | ... | |
| 2017년 3월 1일 | 회생법원 출범 | 2008년 | 35위 |
| 2017년 3월 3일 | 2차 회생절차 신청 | 2007년 | 41위 |
| 2017년 10월 말 | 2차 회생절차 졸업 | 2006년 | 45위 |

*출처: 건설위키(토건 시평액 기준)



토건 시평액 35위→119위 추락
외환위기·건설업황 악화 직격탄
‘매출액 200%’ 리비아 사업 좌초
2012년 영업손실 4500억 육박

법정 관리 기업 ‘꼬리표’ 여전
고려제강, 인수합병 성공했지만
1년세 영업 손실 3배 늘어 134억

아웃 과정에서 금융채무 이외에 신용채무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 이 때문에 워크아웃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신규자금을 구하기 어려웠다. 부채만 탕감받을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일건설은 선례를 극복하지 못하고, 희망도 잠시 30개월여 만인 2013년 2월 첫 번째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한일건설에도 희망은 있었다. 건설경기 악화를 체감하던 한일건설은 다른 건설사와 마찬가지로 해외 사업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2008년

12월 리비아 행정센터 개발위원회(ODA)와 수도 트리폴리에서 서쪽으로 50km가량 떨어진 도시 알자위야에 총 1조1187억 원 규모의 주택단지(4000가구)를 건설하는 공사를 수주했다. 이 규모는 당시 한일건설이 건축공사로 진행하던 전체 규모의 기말 잔액(1조460억 원)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매출액의 200%가 넘는 금액이었다. 사실상 회사의 사활을 걸고 뛰어들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운이 따르지 않았다. 공사가 채 마무리되지 않았던 2011년 리비아에서 내전이 발발하면서 공사를 중단했고, 기회는 더 강한 위기로 전환됐다. 수주가 미뤄지면서 공사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것은 물론 과도 정부를 상대로 파손된 설비 보상 문제도 한일건설의 발목을 잡았다. 당시 큰 유동성 위기를 겪은 한일건설은 2012년 기준 4451억 원의 영업손실과 2988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한일건설은 2015년 4월, 법정관리에 들어선 이후 2년 2개월 만에 기업회생 절차를 가까스로 졸업한다. 하지만 결국 리비아 사업은 좌초됐고, 그 과정에서 경남

양산시 한일아파트 용벽 붕괴의 책임을 놓고 시와 소송을 벌인 끝에 패소하면서 2016년 말 다시 재정에 타격을 입었다. 한일건설이 새로 태어난 회생법원을 찾은 배경이다. 건설사 30~40위권을 유지하던 한일건설은 2017년 119위까지 추락하게 된다.

◇회생법원 이후 한일건설은 다시 살아났나? = 다시 찾은 회생법원에서 한일건설은 고려제강을 새 주인으로 맞는다. 당시 고려제강뿐 아니라 삼리마이다스(SM) 그룹도 한일건설 매수에 참여했지만, 고려제강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서 최종 인수자로 낙점됐다.

회생법원을 졸업한다는 것은 죽은 기업이 ‘살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법정관리를 밟은 기업은 다시 법원을 찾는다’라는 말처럼 여전히 한일건설의 미래는 장담하기 어렵다. 2017년 말 기준 한일건설의 자산총계는 2153억 원, 부채총계는 1448억 원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 원전자본잠식에선 벗어났다. 하지만 영업손실은 2016년(46억 원)에 비해 2017년 134억 원으로 3배 이상 늘면서 여전히 법정관리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벗어나지 못했다.

회생법원을 통해 한일건설은 하나의 지평을 열었다. 회생기업이 인수의향자와 공개입찰을 전제로 인수계약을 맺는 방식인 스톡킹 호스의 첫 사례였기 때문이다. 이 제도 전에는 공개입찰을 하는 바람에 M&A 시장에서는 ‘승자의 저주’가 나타났다. 이 방식에서는 인수의향자를 확보한 상황에서 공개입찰로 전환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나은 조건만 제시하면 그만이다. 한일건설 인수 과정에서 고려제강이 100억 원만 더 내서 인수한 배경이기도 하다.

곽진산 기자 jinsan@



농협금융, 동남아 영토 확장 속도 김광수 농협금융 회장이 지난달 21일부터 1주일간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를 방문했다. 이번 일정은 동남아시아 국가별 맞춤형 현지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농협금융은 은행과 증권을 중심으로 동남아 지역에서 속도감 있게 영업 기반을 넓혀왔다. 김 회장, 썬 유옥 칸 아그리뱅크 회장, 양사 관계자들이 지난달 21일 베트남 하노이 아그리뱅크 본부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NH농협금융지주

‘보이지 않는 손’에 막힌 기업銀 ‘노조 추천 이사제’

금융 인사이트

기업은행 노사가 신임 사외이사 자리를 두고 ‘동상이몽’에 빠졌다. 은행은 내부 규범에 따라 사실상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관문을 넘지 못하면 은행장 제청과 금융위원회 임명 단계까지 도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노조의 주장이 관철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핵심은 기업은행의 ‘정부 눈치보기’다. 기업은행의 이번 의사결정에도 최대주주인 기획재정부와 불가피한 마찰을 피하겠다는 셈법이 깔려 있다.

기업은행은 기재부가 지분 50.9%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공공기관이다. 기업은행 노조가 여러 절차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협조만 있으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보는 이유다. 하지만 이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관피아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금융권은 기업은행 사외이사사 이 이미 누가 울지 정해졌을 것이라고 관측한다. 그동안 기업은행 사외이사 선임은 대개 은행장 제청 없이 정부가 지정한 인물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게 관행이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이사회, 안전 상정 계획 없어
‘최대주주’ 기재부와 마찰 회피
관행 따라 ‘낙하산 인사’ 유력

기업은행은 기재부가 지분 50.9%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공공기관이다. 기업은행 노조가 여러 절차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협조만 있으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보는 이유다. 하지만 이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관피아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기업은행 노조가 여러 절차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협조만 있으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보는 이유다. 하지만 이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관피아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카드사-대형가맹점 수수료 협상’ 칼자루 쥔 금융위

내달 카드수수료 산정 현황 점검 협상 과정 압박 변수로 작용 전망
“가맹점 계약 해지는 처벌 못해”

카드사가 예정대로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를 인상에 나섰다. 당장 현대·기아자동차는 수수료율 인상에 반발해 가맹점 해지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하지만 카드사 역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직접 개입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수수료율 인상 기조에 무게를 두고 있어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사이 협상 과정에서 압박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상했다. 인상 폭은 최대 0.3%포인트로 연매출 500억 원 초과 대형가맹점 2만여 곳이 대상이다. 이번 인상으로 대형가맹점은 평균 2%대 수수료율을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대형가맹점은 수수료율 인상 통보를 받고 공개 또는 비공개로 협상을 지속해왔다. 현대·기아차는 수수료율 인상 통보 직후 공개적으로 인상안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카드업계와 조율에 실패하면 해당 카드결제를 받지 않는 ‘가맹 해지’까지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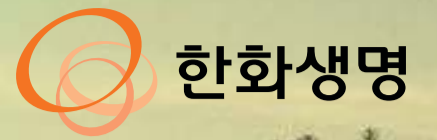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와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가운데 과거 BC카드와 갈등을 겪었던 이마트와 한 대형 인터넷 쇼핑몰 등 두 곳 정도가 특히 강경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들 가맹점은 수

수수료 인상 통보 직후부터 실무진 협상을 이어갔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금융당국의 개입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특정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산정 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당국의 개입에 대형가맹점이 직접 반응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대형가맹점이 가맹점 해지를 선택해도 이를 처벌할 법적 조항은 없다. 금융위도 “(대형가맹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면서도 “가맹 계약 해지는 별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더 나은 선택과
 더 나은 경험을 통해
 더 나은 나를 찾을 수 있게
 새로운 금융을 해보려 합니다

더 잘 살기 위해
 Life as a service



Lifepus는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한화저축은행이 함께합니다

“여심 잡아라”...가전 라이벌, 빌트인 결투

(built-in)

LG 시그니처 키친 쇼룸 이어
삼성도 강남에 ‘데이코’ 매장
가전 시장의 새로운 블루오션

올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빌트인 분야에서 본격적인 경쟁을 펼친다. 삼성전자는 이미 우리나라에 빌트인 전시관을 운영 중인 LG전자에 대해 강남 대치동에 빌트인 매장을 개장할 예정이다. 양사는 지난달 중순 미국에서 열린 북미 최대 주방·욕실 관련 전시회 ‘KBIS 2019’에서 프리미엄 빌트인 신제품을 고객에게 선보이기도 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 디지털프라자 메가스토어 대치점 4층에 설치 중인 ‘데이코 쇼룸’이 이르면 3월 개장한다. 데이코는 삼성전자가 2016년 1억5000만 달러(약 1685억 원)에 인수한 미국의 럭셔리 주방 가전 브랜드다.

삼성전자는 애초 데이코 쇼룸을 지난해 말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상품 배치 등과 관련해 데이코와 의견 차이가 발생하면서 개장 일정을 미뤘다.



삼성전자는 서울 강남구 삼성디지털프라자 메가스토어 대치점(왼쪽) 4층에 설치 중인 ‘데이코 쇼룸’을 이르면 3월에 개장할 예정이다. 오른쪽은 LG전자 프리미엄 빌트인 전시관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쇼룸.



한영대 기자 yeongdai@LG전자

데이코 쇼룸이 열리면, 국내 빌트인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LG전자는 2017년 강남구 논현동에 국내 최초 초프리미엄 빌트인 전문 전시관인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쇼룸’을 열었다. 지상 5층, 지하 1층으로 규모로,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쇼룸은 LG전자의 프리미엄 빌트인이 전시됐을 뿐만 아니라, 고객이 실제로 최고급 요리

를 배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양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KBIS에서 프리미엄 빌트인 신제품을 공개하며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삼성전자가 전시한 ‘투스칸 스테인리스’ 주방 가전 패키지는 일반적인 스테인리스 소재와 달리 고급스러우면서 따뜻한 색감을 살려 차별화했다. LG전자는 18인치·24인치 칼럼형 와인

셀러, 36인치·48인치 가스오븐레인지 등 신제품 4종을 선보였다. 그중에서도 와인셀러 신제품은 와인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진동과 온도 변화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에게 음식 종류에 따라 어울리는 와인도 추천해준다. 삼성전자, LG전자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빌트인 시장 규모는 국내로 한정했을 때 전체 가전 시장(약 6조5000억 원)의

15%에 불과하다. 다만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전통 가전 시장과 비교해봤을 때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냉장고, 에어컨과 같은 시장은 이미 레드 오션화가 됐다면, 빌트인 가전이 수익성도 높은 만큼 업체 간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롯데정밀화학, 감사위 신설...우태희 등 감사위원 물망

(前 산업부 차관)

투명성 높이고 지속 성장 자신

롯데정밀화학이 감사위원회를 신설한다.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고 향후 자산 총액 2조 원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결정이다.

3일 롯데정밀화학에 따르면 이 회사는 내달 25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를 설립하고 감사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감사위원 명단에는 이창수 중앙대 산업창업대학원 겸임교수, 우태희 연세대 공학대학원 특임교수, 안경현 서울대 공과대학 화학생명공학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롯데정밀화학은 감사위원회의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처럼 상근 감사만을 뒀다. 하지만 이사회 내 감

사위원회를 설치하며 내부 통제를 강화, 기업의 투명성과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감사위원회는 기업경영 감시 체제 강화 차원에서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대형 상장법인이나 증권회사에서는 법적으로 상설 기관으로 설치해야 한다.

롯데정밀화학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회사의 성장을 자신하는 표현으로도 해석된다.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준인 자산 총액 2조 원까지 회사의 덩치를 키우겠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롯데정밀화학의 자산 총액은 2017년 말 기준 1조5824억 원이며, 작년 3분기 말에는 1조5913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그동안 상근 감사만

두고 있었지만, 감사위원회를 만들어 기업의 투명성을 올릴 것”이라며 “아울러 자산 총액 2조 원이 되면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그때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정밀화학은 메셀로스(건축용 시멘트 물성 향상제), 헤셀로스(수용성 페인트 첨가제), 에니코트(의약품 캡슐 및 코팅제), ECH(에폭시수지 원료) 등의 스페셜티 제품을 생산하며 건축, 의약, 전자 등 광범위한 산업분야를 공략하고 있다. 이 회사는 스페셜티 케미칼 사업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2일 광주 ‘갤럭시 팬 파티’에서 지코(ZICO)가 공연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춤·노래·음식으로 표현한 갤럭시S10

갤럭시 10주년 팬 파티
지코 연출...3만명 신청
서울·대전·대구 주말쇼

삼성전자는 ‘갤럭시 S10’의 국내 출시를 팬들과 함께 축하하는 ‘갤럭시 팬 파티’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부산에서 시작된 갤럭시 팬 파티는 지난 10년간 갤럭시를 사랑해준 팬들이 주인공으로, 직접 참여하고 함께 호흡할 수 있게 기획됐다.

특히 밀레니얼 팬들이 갤럭시 팬 파티를 더욱 흥미롭게 즐길 수 있도록 팬 스페셜리스트(Fan Specialist)와 협업했다. 인기 뮤지션이자 갤럭시의 팬인 지코(ZICO)가 총괄 디렉팅을 맡아 독보적인 무대 연출과 공연 아이디어를 기획했다. 공간 디자이너 문승지가 인스타그램(Instagramable,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한 팬 파티 공간을 연출하고, 요리하는 연출가 이육정 PD가 음식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했다.

가수 10cm는 갤럭시 10년을 맞아 갤럭시 팬의 스토리로 만든 음원을 최초로 공개해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이외에도 크러쉬, 페노메코, 벤이 감성적인 무대를 꾸몄다. 밀레니얼이 열광하는 포인트를 팬 파티 전반에 적

용하여 ‘갤럭시 S10’과 연계한 퍼스널 컬러 컨설팅, ‘갤럭시 S’부터 ‘갤럭시 S10’까지 혁신의 히스토리를 댄스로 형상화한 퍼포먼스, 퀴즈쇼 등도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또 갤럭시 팬 파티에서는 다이내믹 AMOLED 디스플레이, 트리플 카메라, 무선 배터리 공유 등 ‘갤럭시 S10’의 새로움도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다.

갤럭시 팬 파티는 부산, 광주에 이어 서울(3월 8일, 블루스퀘어), 대전(3월 15일, 롯데캐피탈), 대구(3월 16일, 빌리웍스)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갤럭시 팬 파티는 지난 10년 동안 갤럭시를 사랑해 준 팬들이 진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특별하게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갤럭시 팬의 자부심과 팬심을 높일 수 있는 팬 중심의 프로그램들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갤럭시 팬 파티는 매회 색다른 콘셉트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팬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하며 삼성전자의 대표적 팬덤 마케팅으로 자리 잡았다. 2월 14일부터 진행된 사전 신청에는 약 3만 명 이상의 갤럭시 팬들이 참여해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송영록 기자 syr@

LG 가전관리서비스, 업계 첫 ISO 10002

‘케어솔루션’ 소비자 만족 1위
공기청정기 등 7종 방문 관리

LG전자가 선보인 신개념 가전관리서비스 ‘케어솔루션’이 렌털서비스 업계 최초로 고객만족경영시스템(ISO 10002) 인증을 획득했다.

LG전자는 서비스 및 유지보수 자회사인 하이-에스솔루션이 최근 국제표준인증 전문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케어솔루션 서비스에 대한 ‘ISO 10002’ 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렌털서비스 업계에서 이 인증을 받은 것은 LG전자 케어솔루션이 처음이다.

ISO 10002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고객만족경영시스템 표준에 따라 고객의 요구에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게 응대하는 우수 기업 또는 기관임을 인정하는 국제인증이다. 고객의 소리(VOC: Voice Of Customer)를 귀담아듣고 해결할 방법을 찾고 관리하며 모니터링이 가능한지를 엄격히 심사한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1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정수기 렌털서비스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서비스 품질, 서비스 상품, 서비스 호감도 등에서 모두 최고점을 기록하며 종합만족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LG전자가 지난해 11월 선보인 케어솔루션은 △정기적으로 핵심 부품을 새로 교체하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철저하게 위생을 관리하고 △제품이 항상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는 등 ‘케어솔루션 매니저’가 생활가전 제품들을 철저하게 관리해주는 신개념 서비스다.

제품별로 구분돼 있던 렌털서비스와 유지관리 케어십은 케어솔루션으로 통합했다. LG전자는 공기청정기, 정수기, 건조기, 전기레인지, 스타일러, 안마의자, 얼음정수기냉장고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생활가전 7종을 대상으로 케어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들은 단순히 제품을 임대해주는 렌털에 비해 전문성과 진정성을 갖춘 세심한 관리를 통해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케어솔루션 대상 제품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두산밥캣, 美딜러 800명 미팅
농기계 포트폴리오 확대 계획

두산밥캣은 지난달 25일(이하 현지시간)부터 28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란드에서 딜러 미팅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스카트 사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북미시장 딜러 800여 명이 참석했다.

딜러 미팅은 3년마다 개최되는 북미지역 최대 행사로 회사의 중장기 사업방향과 비전을 딜러들과 공유하고 영업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행사는 ‘REIMAGINE(발상의 전환)’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 두산밥캣은 미래 성장을 위해 집중해야 할 3대 핵심 과제로 ‘주력 제품 3종의 북미시장 점유율 1위로 3관왕 달성’, ‘시장 커버리지 확대’, ‘혁신’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발상의 전환’을 주제로 한 외부 강사 초청 세미나를 비롯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콤팩트 트랙터(CT) 등 주요 신제품을 소개했다.

두산밥캣은 북미지역에서 올 하반기에 CT, 내년 초에 SAL(소형 굴절식 로더) 등을 출시하며 향후 농기계 영역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친환경차 점유율, 유럽 앞질러...12만 대 판매 돌파

지난해 8.2%...유럽은 6.6%
하이브리드 신규 등록 9만 대
전기차 3만 대, 수소차 731대

우리나라의 친환경 자동차(HEV, EV, FCEV) 시장이 하이브리드차를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친환경차 판매량은 전년비 26.2% 증가한 12만4979대를 기록하며 '10만 대'를 돌파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3일 '2018년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친환경차의 승용차 시장 점유율은 2015년 2.8% 수준에서 2018년 8.2%로 확대돼 서유럽(6.6%)과 미국(3.9%)을 앞지르게 됐다.

친환경차 종류별로는 수소전기차의 판매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하이브리드차는 친환경차 시장의 양적 성장을 주도

했다. 수소전기차는 전용 모델인 현대 넥쏘를 중심으로 전년비 780% 이상 증가한 731대(버스2대 포함)가 판매되며 정부 보급목표(659대)를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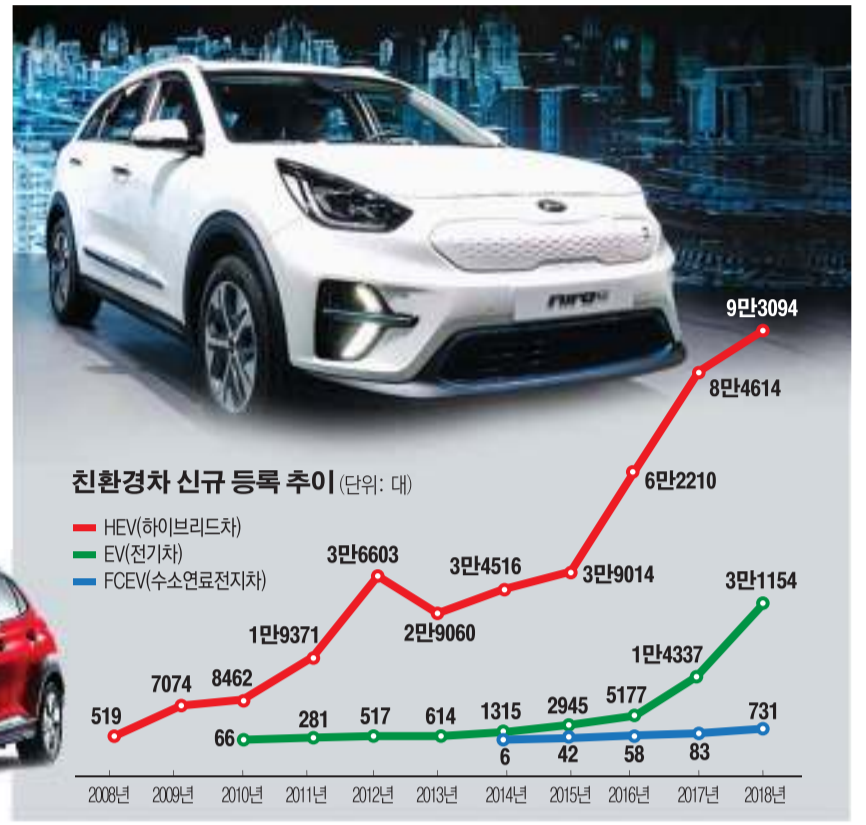
전기차는 신규 모델 출시, 정부 구매보조금 및 세금감면 규모 확대로 전년비 110% 이상 증가하며 연간 판매가 3만대를 넘어섰다.

하이브리드차는 휘발유 가격 인상 및 고급화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만족도 등으로 그랜저, K7 등 대형세단 모델 위주로 증가했다. 전체로는 10% 증가한 9만3094대를 기록했다.

한편, 국내 경·소형 승용차(모든 연료포함)의 판매 비중(2018년 10.0%)은 서유럽(2017년 40.0%), 일본(2018년 34.1%)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과거 연간 20만 대 규모였던 경·소형차 시장은 지속적 임금인상 등으로 생산원가가 상승하면서 원가 회수가 어려워짐에 따라 출시 모델이 축소됐다. 또

소비자의 중·대형차 선호 등 수요 이동으로 2018년 전년비 10.7% 감소한 15만 2757대가 판매되며 시장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최근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 판매가 급성장함에 따라 충전소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 등이 시급하다"며 "특히 정부가 올해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차질 없이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친환경차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동차산업의 R&D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격 고장진단' 굴삭기 양산 돌입

현대건설기계·커민스 기술 개발
내달 독일서 AR 모니터링 첫선

현대건설기계는 최근 미국 인디애나주 커민스 본사에서 엔진 원격 고장진단서비스 상호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엔진 원격 고장진단서비스는 현대건설기계의 원격관리시스템(Hi-MATE)과 커민스의 엔진 솔루션을 통해 고객이 굴삭기 엔진의 부품 이상 여부와 문제해결 방안이 담긴 진단리포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다.

양사는 2017년 초 기술개발 MOU를 맺은 후 2년여간 공동 개발에 나선 끝에 최근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

굴삭기는 일반적으로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광산, 산림, 토목현장 등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 원격으로 고장 정보와 조치 방안을 확인하게 되면, 정비에 필요한 부품과 기자재를 미리 준비할 수 있어 대기시간을 줄이면서 원스톱으로 정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대건설기계는 이달부터 이 기술이 탑재된 굴삭기 양산에 돌입하는 한편 다음



김대순(왼쪽 세 번째) 현대건설기계 부사장과 스티브 칸드 파드마한(왼쪽 두 번째) 커민스 사장이 1일(현지시간) 미국 인디애나주 커민스 본사에서 '엔진 원격 고장 진단서비스 상호 협력계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 현대중공업그룹

달 8일부터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세계적 건설장비 전시회인 '바우마(BAUMA) 2019'에서도 이 기술을 소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현대건설기계는 원격진단 과정을 비롯해 엔진 고장 부위 및 정비 절차 등을 고객들이 AR(증강현실)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이메이트(Hi MATE)'는 현대건설기계가 2008년 자체 개발한 원격관리 시스템이다. PC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장비의 위치 및 기동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LG U+월 9900원 50GB 패키지 출시

LG유플러스가 월 기본료 9900원(VAT 포함)으로 영화, 드라마, 음악 등 미디어 관련 콘텐츠를 알차게 즐길 수 있는 '영상 뮤직 알찬패키지'를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영상 뮤직 알찬패키지는 동영상과 음악 등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하는 고객이 많아짐에 따라 기획된 부가서비스 상품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U+모바일tv와 지니뮤직 등 미디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패키지다. 패키지는 매달 △비디오 전용 데이터 50GB와 함께 △U+모바일tv 기본 월정액 △U+영화 월정액 △통화 연결음 월정액 △통화 연결음 및 목소리 총 4건 △지니뮤직 앱 음악 감상 혜택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영상 뮤직 알찬패키지' 출시와 함께 지난달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패키지 가입자 중 1개월 이상 가입을 유지한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뒤 1개월이 되

는 날부터 매달 U+모바일tv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료 콘텐츠 VOD 쿠폰 1만 원권을 증정한다. 3월에 가입하면 4월부터 6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받을 수 있다.

50GB 상당의 비디오 전용 데이터는 'U+모바일tv'와 'U+영화월정액'을 비롯해 자사의 스포츠 및 공연 미디어 서비스인 'U+프로야구', 'U+골프', 'U+아이돌 Live'까지 총 5개 앱을 이용할 수 있다. 약 2시간 길이의 영화 한 편을 보는 데 드는 데이터가 2.5GB임을 고려하면, 비디오 전용 데이터 월 50GB로는 매달 영화 약 20편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셈이다.

이상현 LG유플러스상품기획·전략담당 상무는 "고객이 부담 없이 미디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각 서비스를 단품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70% 저렴한 '영상 뮤직 알찬패키지'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동아제약

마지막 치과치료 언제였나요?

잇몸을 지키는 Daily Care, **검가드**

액상 타입으로 잇몸 사이사이 구석구석까지 강력하게!
잇몸 질환 원인균 99.9% 제거

검가드, 이런 분께 권합니다

- ▶ 피곤할 때마다 잇몸이 쉽게 붓는다
- ▶ 양치질 등 작은 자극에도 잇몸에서 피가 난다
- ▶ 평소보다 입 냄새가 심하게 난다
- ▶ 이가 흔들리는 느낌이 든다

■ 치은염, 치주염 예방 및 개선효과
치은지수(GI)개선 효과 정도(6주사용)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6주 임상]

■ 잇몸질환 원인균 진저빌리스크균 99.9% 살균효과(시험기관·노르젠(주))

■ TPA 성분으로 잇몸 혈액순환 촉진 ■ 판테놀 성분으로 잇몸을 탄탄하게

잇몸가그린® 검가드

사막에 싹 틔운 KT 스마트팜... 하루 3500명분 食水 절약

100일 맞은 UAE '글로벌 1호 스마트팜'

첨단 ICT 적용 600㎡ 규모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팜'
AR글라스 통해 작업자 관리... PC·모바일로 원격제어
땅이 아닌 물로 농사... 물 순환시스템으로 70% 재활용

KT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선보인 '글로벌 1호 스마트팜'이 출범 100일을 넘겼다. KT는 농업 ICT 사업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KT는 UAE 샤르자 코르파칸에서 'UAE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팜' 출범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어 구축 경과 및 진행 성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KT는 지난해 11월 18일 UAE를 구성하는 7개 토착국 중 아부다비, 두바이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샤르자의 코르파칸 지역에 글로벌 1호 스마트팜으로 UAE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팜을 열었다. 이곳은 KT와 샤르자 인도주의센터가 공동 구축

했다.

UAE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팜은 약 600㎡(180평) 규모로 장애인에게 최적화된 시설과 첨단 ICT를 적용했다. 증강현실(AR) 글라스를 통해 외부에 있는 관리자가 현장에 있는 작업자에게 원격으로 실시간 교육을 하거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내부 및 외부 센서를 통해 모든 시설을 PC나 모바일 앱으로 원격 제어하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가능하다.

UAE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팜이 문을 열기까지 SCHS 센터장인 셰이카 자말라 샤르자 공주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 지난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열린 평창포럼에 참석한 자말라 공주는 KT가 경기남양주에 국내 최초로 조성한 장애인



UAE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팜'에서 현지인들이 허브 작물을 심고 있다.

사진제공 KT

맞춤형 스마트팜을 방문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후 KT에 SCHS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팜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KT는 농업 용지와 관계 시설이 부족한 UAE의 지리적 특성과 연 강수량 100mm 미만에 40도가 넘는 사막 기후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UAE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팜은 농업

와 쿨링 팬을 적용했다. 스마트팜 내부는 27~28도를 유지한다. 쿨링 시스템은 264㎡ 규모 에어컨 2대를 설치하는 것에 비해 에너지 비용을 약 70%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스마트팜에선 땅이 아닌 물로 농사를 짓고 있다. 이를 위해 KT는 작물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양액 시스템을 도입했다.

KT가 스마트팜을 운영한 결과 물 순환 시스템으로 물을 70%가량 재활용할 수 있었다. 스마트팜에 하루 필요한 물의 양은 7500리터이므로 매일 약 5200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 성인이 음식물로 섭취하는 수분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1.5리터를 마시는 것을 고려하면 약 3500명분의 식수를 아끼는 셈이다.

윤종진 KT 부사장은 "KT는 5G를 중심으로 사람을 위한 기술, 인력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기술을 추구하고 있다"며 "UAE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팜은 척박한 환경에서 농업 생산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돕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알톤-삼천리 '전기자전거' 힘 대결

전기자전거 등 최신 스마트모빌리티 제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열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알톤스포츠와 삼천리자전거는 서울 양재동에서 열리는 '코리아 스마트모빌리티 페어(이하 코빌)'에 참가해 올해 신제품을 대거 선보인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코빌은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aT센터 전시장에서 열린다.

우선 알톤스포츠는 3년 연속 참가하며 니모FD와 벤조 시리즈, 탈레스FS800, 니모FS, 이노젠 등 전기자전거 9종과 위고D10, 이코어S8 등 스마트모빌리티 4종 등 총 13종의 신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보다 확대된 중저가 라인의 전기자전거와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등 스마트모빌리티 제품을 주력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에서 공개하는 2019년 전기자전거 신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핵심 부품인 모터의 출력이 기존 250W

에서 350W로 업그레이드된 것이다. 출력이 높아진 만큼 전기자전거의 등반 성능과 순발력이 강화됐다.

출발 시 가속을 부드럽게 해주는 '슬로 스타트 기능'도 올해 신제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다. 새롭게 장착한

삼천리자전거는 전기자전거 11종과 퍼스널모빌리티 제품 3종 등 총 14종을 출품한다. 전기자전거 '팬텀이콘'은 필수적 기능 중심의 미니멀한 제품으로 기존 제품에 비해 비용을 크게 낮췄다. 시트포스트 내장형 배터리로 일반자전거와 동일한 디자인에 승하차가 쉽게 디자인된 프레임도 특징이다.

후대 및 보관성이 우수한 20인치 접이식 전기자전거 '팬텀 마이크로'도 선보인다. 5단계 파워어시스트 구동 방식을 적용해 성능과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휴대성은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첼로 블렛FX'는 퍼포먼스 자전거 전문 브랜드 '첼로'의 풀서스펜션 eMTB다. 본격적인 산악 라이딩을 원하는 전문 동호인을 위한 전기자전거로 전기 구동계는 시마노 스텝스 e8000이 장착됐다. 70Nm의 높은 출력과 504Wh의 대용량 배터리로 거친 오르막에 대한 부담 없이 산악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삼천리자전거 '팬텀이콘'.



알톤스포츠 '니모FD'.



8일부터 사흘동안 '2019 코빌'... 신제품 대거 공개
모터출력 350W로 높이고 '슬로 스타트' 기능 추가

이 기능은 급발진의 느낌을 최소화해 전기자전거를 처음 접하는 사용자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물 튀김을 방지하는 팬더, 조작성과 가독성을 높인 중형 LCD 패널, 전방 라이트, 전용 짐받이 등 신제품에 적용된 다양한 옵션도 이번 전시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대리바트, 도곡동 전시장 리뉴얼 오픈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인테리어 기업 현대리바트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주방가구 전문 전시장 '리바트 키친 도곡 전시장(사진)'을 리뉴얼한다고 3일 밝혔다.

도곡 전시장은 프리미엄 콘셉트로 기존 평당(약 3.3㎡) 인테리어 비용 대비 3배를 들여 고급 소재로 매장을 꾸렸다. 주방가구의 특성상 구매 시 장시간 상담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2층에 테라스를 꾸며 고객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매장 규모(2개 층)와 영업면적(1139㎡)은 기존과 같다.

1층에는 '누보(크림, 화이트)', '피노누

아(다크그레이, 닙블루)', '어센틱(로보스터, 비바체)' 등 1000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 제품 10여 종을 전시한다. 이들 주방가구에는 선택형 제품인 수전(수도꼭지), 후드(주방 환기 기구), 쿡탑(빌트인 가스레인지·전기레인지) 등을 미국·독일·이탈리아 등에서 수입한 프리미엄 제품으로 설치했다. 2층에는 1월 출시한 신제품 'L100' 등 10여 개 제품을 전시한다.

도곡 전시장 내에 82㎡(약 25평) 규모의 이탈리아 프리미엄 세라믹 브랜드 '플로림 스톤' 쇼룸도 들어선다. 쇼룸과 연계해 프리미엄 세라믹 타일 '플로림 스톤'이



적용된 주방가구 신제품을 전시·판매할 계획이다. 앞서 현대리바트는 이탈리아 세라믹 타일 제조 전문기업 '플로림(FLORIM)'과 프리미엄 세라믹 브랜드 '플로림 스톤'에 대한 국내 독점 수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5G·미디어·보안기술 공동 개발" SKT-도이치텔레콤 MOU 체결

R&D 합작사 설립 검토

SK텔레콤이 유럽 최대 통신사 도이치텔레콤과 네트워크, 미디어, 보안 등 기술 관련 개발 협력에 나선다.

3일 SK텔레콤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19'에서 도이치텔레콤과 5G 네트워크, 미디어, 보안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5G 상용화를 앞둔 도이치텔레콤과 세계 최초 5G 상용화 노하우와 함께 LTE부터 세계 최고 수준을 지켜온 네트워크 운용 기술을 공유한다. 또 차세대 미디어 기술, 보안 기술 등에 대한 공동 개발 및 사업 협력도 추진한다.

이번 협약으로 SK텔레콤과 도이치텔레콤은 보유 기술을 기반으로 유럽의 관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SK텔레콤은 양사의 기술력과 도이치텔레콤의 유럽 시장 영향력을 바탕으로 5G 기반 미디어는 물론 보안 사업 기회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호(왼쪽) SK텔레콤 사장과 팀 회트게스 도이치텔레콤 회장이 'MWC 2019'에서 5G 네트워크, 미디어, 보안 기술의 공동 개발을 위한 MOU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SKT

이번 협약 체결로 양사는 R&D 합작회사 설립 검토 등 사업 개발 및 시장 개척을 위한 구체적인 행보를 함께한다.

SK텔레콤은 오랫동안 축적해 온 세계적인 수준의 네트워크·미디어·보안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도이치텔레콤과의 협력을 끌어냈다.

김범근 기자 nova@

과기부, 민간 주도 블록체인 프로젝트 추진

87억 규모... 조기 상용화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블록체인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민간 주도 국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 내역 등의 정보를 기록·검증·보관하는 기술이다.

과기정통부의 민간 주도 국민 프로젝트는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이용 가능한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과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자유 공모를 실시했다. 제조, 통신, 금융 등 분야별 대표 기업과 블록체인 관련 벤처·스타트업 등으로 구성

된 24개 컨소시엄(80개 기업)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현 가능성, 블록체인 적용에 따른 개선 정도 등을 자세히 평가해, 이 중 3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기술 협상을 거쳐 3월 중순 협약 체결을 거쳐 총 87억 원(정부 45억 원+민간 42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시작될 예정이다.

김정원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정부는 기술·인력·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해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출산을 떨어뜨려도 웃는 유아용품 업계

‘리안’ 아기침대 2개월 새 완판
‘뉴나’ 카시트도 한 달 만에 동나
호텔들 ‘유캉스 패키지’ 만들고
백화점도 아동 위한 공간 늘려



리안이 출시한 코슬리퍼 아기침대 ‘드림콧’.

아기 울음소리는 줄지만, 유아용품 업체는 불황 무풍지대다. 아기띠, 유모차 등 유아용 신상품은 출시되는 족족 완판 행렬을 기록하며 불황을 비껴가고 있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32만6900명으로 전년(35만7800명)보다 3만900명(8.6%) 떨어졌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동안 월간, 분기별 통계에서 0명대 출산율을 기록한 적은 있지만, 연간 통계로 0명대가 집계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 통계 결과 인구절벽이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이 위기에 직격탄을 맞을 법한 유아용품 업계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국내 유아용품 브랜드 리안(Ryan)은 지난해 12월 출시한 신생아용 아기침대 ‘드림콧’((Dream cot)’이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리안의 ‘드림콧’은 출시 직후 1차, 2차 판매 수량이 동남

데 이어 지난달 킨텍스와 코엑스에서 각각 열린 대형 베이비페어 현장에서 부모들의 예약 구매가 이어져 4월부터 진행되는 예약 판매 물량 중 30%의 판매가 완료됐다. 리안 관계자는 “중전에는 유모차만 판매했지만 지난해 상반기부터 아기띠를 새롭게 선보였고, 하반기에는 침대를 출시했다”며 “저출산으로 유모차만 팔아선 안 된다는 생각에 상품군을 늘렸는데 판매율이 좋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유아용품 브랜드 ‘뉴나(NUNA)’의 카시트 신제품 ‘에이스 New’도 출시 한 달 만에 완판됐다. 뉴나 측은 “지난달 베이비페어에서 해당 제품은 조기 매진을 기록했고, 13일 2차 판매를 앞두고 예정된 출시 물량의 50%가 이미

예약됐다”고 밝혔다.

유아동을 겨냥한 시장이 활기를 띠는 덕에 이 시장에 뛰어드는 유통업체도 늘고 있다. 최근 호텔가는 영유아를 위한 호캉스 패키지를 선보였다. 반얀트리 클럽 앤 서울 스파는 객실 내 릴랙세이션 풀에서 아기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유캉스 패키지’를 출시했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도 12개월 미만의 아기 고객을 위한 ‘디어 베이비 패키지’를 연말까지 선보인다.

유아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유통기업도 눈에 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2월 대구 상인점, 부산 광복점에 유아동 놀이 발달 브랜드 ‘분홍 무지개 슬라임 카페’를 열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2017년 부산 본점에 최초로 선보인 ‘리틀 엘라이브러리 1호점’의 경우 개점 후 1년 동안 3만 명 이상이 방문했고, 부산 본점의 아동·유아 매장을 찾은 신규 고객은 35% 증가했다”며 백화점에 유아동 공간을 늘리는 이유를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영자나 공주처럼 자녀를 귀하게 키우는 ‘골드 키즈’가 늘고, 1·2명의 자녀에게 조부모를 비롯한 일가친척이 소비를 집중하는 8포켓 현상이 나타나면서 저출산 현상에도 유아동 시장은 계속 호황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영화 속 그 왕갈비통닭!

인기몰이 중인 영화 ‘극한직업’에 나온 ‘수원왕갈비통닭’ 매장이 롯데백화점에 등장했다. 롯데백화점은 영화에 수원왕갈비통닭의 원조 레시피를 제공한 루소프떡과 함께 소공동 본점에서 ‘수원왕갈비통닭’ 팝업스토어를 10일까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바삭하게 튀긴 통닭에 특제 갈비소스를 버무려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맛이 특징인 수원왕갈비통닭은 1500만 영화 관객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진제공 롯데쇼핑

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일반약 ‘아로나민’

매출 663억 기록... 2년째 1위
인사들도 전년에 이어 2위 차지



일동제약의 활성비타민 ‘아로나민’이 지난해 일반의약품 매출 1위 브랜드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동제약은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 조사 기준으로 지난해 663억 원 매출을 기록하며 일반의약품 중 가장 많은 매출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17년과 비교해 2.3%가량 감소한 수치이나 여전히 1위 자리를 지켰다.

2위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국제약의 치과구강용제 ‘인사돌’이 차지했다. 단 인사들은 지난해 380억6000만 원어치가 팔려 2017년(401억6000만 원) 대비 주춤했다.

이어 한독의 진통소염제 ‘케토톱’이 두계단 오른 3위를 기록했다. 케토톱의 지난해 매출액은 363억60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18% 증가했다.

다음으로는 대웅제약의 ‘우루사’와 광동제약의 ‘청심원’이 각각 339억6000만 원과 329억6000만 원의 매출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동화약품의 마시는 소화제 활명수(297억2000만 원), 대웅제약의 비타민 임팩타민(290억2000만 원), 종근당의 치과구강용제 이모튼(289억2000만 원) 순으로 많이 팔렸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 순위 | 브랜드 | 분류 | 판매사 | 2018년 매출액(억 원) | 전년 대비 성장률(%) |
|----|-------|---------|----------|----------------|--------------|
| 1 | 아로나민 | 비타민제 | 일동제약 | 663 | -2.30% |
| 2 | 인사돌 | 치과구강용제 | 동국제약 | 380 | -5.20% |
| 3 | 케토톱 | 진통소염제 | 한독 | 363 | 18.10% |
| 4 | 우루사 | 지양강장제 | 대웅제약 | 339 | 7.50% |
| 5 | 우황청심원 | 순환계용제 | 광동제약 | 329 | -4.60% |
| 6 | 활명수 | 소화기관용제 | 동화약품 | 297 | -1.30% |
| 7 | 임팩타민 | 비타민제 | 대웅제약 | 290 | 23.20% |
| 8 | 이모튼 | 치과구강용제 | 종근당 | 289 | 12.60% |
| 9 | 타이레놀 | 해열진통소염제 | 한국존슨앤드존슨 | 273 | -4.00% |
| 10 | 판피린 | 해열진통소염제 | 동아제약 | 266 | -10.40% |

것에서 착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국산 맥주와 전통주 미니어처를 대폭 강화했다.

국산 맥주로는 카스·하이트 250ml 2종(1080원)을, 전통주로는 영월동강 더덕주 100ml(980원), 금산 인삼주 180ml(7900원), 부산 참뽕주 90ml(2000원) 등 15종을 새롭게 선보였다.

베에로썬핑 노시정 주류 바이어는 “취하기 위해 술을 마셨던 과거와는 달리 요즘 젊은 세대들은 다양한 술을 맛보고, 귀여운 모양의 병을 수집하는 것을 즐긴다”면서 “주 고객층인 젊은 세대의 트렌드에 맞춰 재밌고 다양한 주류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꽃빛 기자 flowerslee@



베에로썬핑은 기존 27가지였던 미니 주류 상품 수를 60여 가지로 확대했다. 사진제공 베에로썬핑

투자 늘리는 제약·바이오... 덩치 커졌지만 수익 줄어

지난해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외형 성장에는 성공했지만, 수익성은 크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R&D) 투자가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지난달 27일까지 2018년 실적을 발표한 62개 제약·바이오기업의 매출 규모를 총 12조3878억 원으로 집계했다. 이는 2017년(11조8968억 원) 대비 4.1% 증가한 규모다.

외형 성장은 업계 상위 기업이 주도했다. 유한양행은 업계 최초로 매출 1조5000억 원을 돌파했으며, 한미약품은 2015년 이후 3년 만에 매출 1조 원대를 회복했다. 대표적 인 바이오기업 셀트리온은 9800억 원을 넘기며 1조 원대에 바짝 다가섰다.

중견 제약사들의 활약도 두드러졌다. 휴온스, 동화약품, 일양약품, 메디톡스, 부광약품 등은 두 자릿수 매출 상승률을 보였다.

그러나 매출과 수익성은 별개였다. 62개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은 9897억

원으로 전년(1조4988억 원)보다 5000억 원 이상 줄어들었다.

한독과 JW신약, 크리스탈지노믹스 등 4개 기업이 흑자 전환했지만, 적자로 돌아서거나 적자 폭이 커진 기업은 엔지켐생명과학, 바이로메드, 삼일제약 등 11곳에 달했다. 또한, 업계 1, 2

**유한양행 업계 최초 매출 1.5조 돌파
한미약품도 3년 만에 1조원대 회복
R&D 투자 확대로 영업이익은 감소
신약개발에 올해도 수익 확보 난항**

위인 유한양행과 GC녹십자의 영업이익은 나란히 40% 이상 감소했고 셀트리온의 영업이익도 대폭 줄었다.

업계는 R&D 투자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를 수익성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현재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연 매출 대비 평균 10% 안팎을 R&D에 쏟아부

고 있다. 해마다 매출 규모가 커지는 만큼 R&D 투자액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조사 결과 국내 혁신형 제약기업 43곳이 올해 R&D에 전년보다 20% 이상 증가한 1조7617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대다수 바이오기업은 금융감독원의 회계 기준 강화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던 R&D 투자금을 비용에 편입하면서 실적 부진이 예견된 바 있다.

업계가 신약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올해도 수익성 확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기업들은 투자한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현재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SK바이오팜)’와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롤로티스(한미약품)’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피하주사제형 바이오시밀러 ‘렘시마SC(셀트리온)’의 유럽 허가 등이 연내 달성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유혜은 기자 euna@

집에서 가볍게 한 잔~ 삐에로썬핑, 미니 주류 강화

귀엽고 적당한 양에 젊은층 인기
매출 두 배 이상 늘며 종류 두 배로

혼술, 흡술을 즐기는 수요가 늘면서 작은 용량의 미니 주류가 인기가 있다.

베에로썬핑은 전체 주류 매출 중 미니 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6월 10%에서 현재 25%까지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500ml, 355ml가 주류를 이루는 맥주 시장에서 250ml, 135ml의 미니 맥주, 700ml, 500ml가 주류인 양주 시장에서 50ml인 미니 양주 등 미니 주류 구매

고객의 80%가량이 20~30대 젊은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700ml 이상의 와인, 양주를 가져갈 만한 술자리가 많았던 데 비해 최근에는 혼술, 흡술 트렌드가 대두되면서 50ml 양주, 190ml 와인, 135ml 맥주 등 부담 없는 용량의 미니 주류가 인기인 것이다.

미니 주류 인기가 높아진 것은 집에서 혼자 가볍게 소량으로 주류를 먹는 트렌드와 이미지로 일상을 공유하는 SNS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양주를 맛볼 수 있고, 술을 잘 먹지 못하는 사람도 가볍게 술을 즐기기에 적당한 양이

란 점이 인기의 한몫했다.

또, 미니 주류의 귀여운 모양 때문에 SNS를 즐기는 젊은 세대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기존 큰 사이즈의 양주, 맥주와 함께 진열해 귀여움을 돋보이게 하거나, 수집한 미니어처 주류를 한데 모은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는 등 술을 입이 아닌 눈으로 즐기는 것이다.

이런 트렌드에 맞춰 베에로썬핑은 종전 27가지였던 미니 주류 상품 수를 2배가 넘는 60여 가지로 확대했다. 특히 일본 여행 경험이 있는 고객들이 여행의 추억을 떠올리며 아사히·기린 미니 맥주를 구매하는

봄바람 부는 리츠 시장... 개인투자 활성화되나

**홈플러스 예상 공모액 1.7兆
수요예측 거쳐 29일 상장 예정
'그들만의 리그' 인식 공모리츠
유동성 확보로 개인 참여 기대**

리츠 시장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성장을 예상하면서도 현금흐름과 배당 등을 고려한 선별 투자를 조언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조 단위가 넘는 초대형 리츠가 국내 최초로 주식시장에 입성한다. 예상 공모금액만 최대 1조7274억 원에 달하는 홈플러스 리츠는 수요예측을 거쳐 29일 코스피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

공모리츠 거래 현황 (단위: 원, 2월 28일 기준)

| 종목명 | 현재가 | 전일대비 | 거래대금 |
|--------|-------|------|----------|
| 케이탑리츠 | 970 | ↓13 | 12억5555만 |
| 이리츠코크랩 | 4,800 | 0 | 2억7266만 |
| 신한알파리츠 | 5,630 | 0 | 1억3375만 |
| 에이리츠 | 5,850 | ↓100 | 7559만 |
| 트러스제7호 | 3,500 | ↑175 | 4088만 |
| 모두투어리츠 | 3,085 | ↓100 | 592만 |

※출처: 한국거래소

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운영해 임대료 등의 수익을 되돌려주는 주식회사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에 따라 리츠는 해당 연도에 벌어들인 순자산액 중 배당이 가능한 금액의 90% 이상은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한다. 부동산 투자 접근이 어려운 소액투

자도 투자에 참여해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점도 매력적이다.

증권가는 홈플러스 리츠 상장이 공모리츠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모리츠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인식이 강해 개인보다 기관 참여가 많은 편"이라며 "홈플러스 리츠로 유동성이 확보되고 개인투자자들의 참여가 활발해지면 활성화는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리츠는 총 222개로 이중 이리츠코크랩과 신한알파리츠, 케이탑리츠, 트러스제7호, 모두투어리츠, 에어리츠 등 6개만이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상태다. 자산총계는 1조1000억 원, 평균 배당수익률은 7.59% 수준이다.

종목별로는 지난해 기준 케이탑리츠가 19.18%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2010년 설립한 케이탑리츠는 서울 여의도 미원빌딩, 서울 강남 서초빌딩, 판교아펠바움(단독주택) 등 8개 빌딩을 운용 중이다. 지난해 결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5.16% 상승한 72억1379만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판교 크래프트타워, 용산 더프라임 오피스빌딩에 투자하고 있는 신한알파리츠는 9.1%, 이랜드리테일의 뉴코아 아울렛 일부 매장을 운영하는 이리츠코크랩은 5.43%의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반면 상장리츠 중 유일하게 호텔(스타즈호텔)을 기초자산으로 한 모두투어리츠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호텔업 불황으로 수익률은 -20% 가까이 추락했다.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인 리츠는 배당수익을 바탕으로 자본이득과 환차익을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부동산 직접투자와는 달리 주식으로 거래돼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특징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기금 역시 대체투자자산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리츠시장의 고성장과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백천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리츠의 가격 변동은 실업률, 경제성장률 등 경기지표의 영향을 받고 기초자산에 따른 섹터별로도 수익률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며 "양호한 현금흐름과 배당 등을 고려해 선별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보스턴AI 손잡고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 도약”

기업탐방

엔터메이트



“보스턴AI 인수를 통해 성장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 게임 개발뿐만 아니라 운영도 고객 맞춤형으로 고도화해야 한다. 해결점이 보스턴AI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확신한다.”

이건범 엔터메이트 신규사업부 본부장은 강남 본사에서 가진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보스턴AI의 AI플랫폼 이름은 ‘세비스탯(SavvyStat)’으로, 현재 국내외 중국 기업들과 해당 기술을 이용해 빅데이터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엔터메이트는 최근 140억 원을 투자해 미국에 있는 인공지능(AI) 플랫폼 기업인 ‘보스턴AI(Boston AI INC)’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주력사업인 게임에 AI 접목과 더불어 AI기술 기반 금융과 경제 관련 분야에도 진출해 수익성 확보에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세비스탯은 빅데이터를 분석해 사람 행동을 수치화하는 AI 기반 플랫폼으로 거시 경제학, 행동 경제학, 계량 경제학 등 경제학 관련 지식을 탑재하고 있다.

실제 국내 게임 적용도 진행 중이다. 보스턴AI는 세비스탯을 활용, 펠어비스의 게임 검은사막 모바일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유저의 최적 환경을 만들

경제 지식 탑재 ‘세비스탯’ 이용 게임 유저 최적 환경 분석 진행 금융분야도 진출... 수익성 확보

어 주기 위한 분석을 진행 중이다.

미국 소재 보스턴AI 강정석 대표이사는 하버드대학교에서 응용물리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동시에 MIT미디어랩에서 신경 과학을 연구하고 있다. 또 MIT 대학교에서 딥러닝(Deep Learning)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한국인 테이 신, 예일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 중인 중국인 다이아나 주 등이 창립 멤버로 근무 중이다.

이 본부장은 “보스턴AI는 미국연방 은행 화폐 경제예측 툴을 만드는 일에 세비스탯을 적용시켜 미국 내에서 주목을 받은 적이 있으며 구글, 아마존 등과 협력하며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또 강정석 대표는 세비스탯의 게임

적용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 적용 이유는 현실 세계처럼 술한 변수를 한꺼번에 투입할 수 있고 이를 구현해 유의미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라며 “특히 MMORPG와 같은 게임에서 구현되는 가상 세계는 현실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소가 그대로 담겨 있기에 AI 연구개발에는 최적화된 요소”라고 강조했다.

보스턴AI가 엔터메이트와 손잡은 이유는 사업의 가시성과 추진력, 그리고 성장 잠재력 때문이다.

국내 대형 게임사는 AI기술을 장기적 투자 관점으로 바라보며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는 반면, 엔터메이트는 AI기술을 접목해 사업화를 추진 중이다. 회사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사업 성공 시 나타나는 효과는 크다. 보스턴AI 주주들은 자사의 가치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사업 파트너를 원했고 이는 엔터메이트의 성장 전략과 맞아 떨어졌다.

이건범 본부장은 “AI 관련 신사업의 매출 증대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이라며 “보스턴AI 인수 대금이 70억 원 현금과 70억 원 규모의 엔터메이트 주식 관련 전환사채인 만큼 양측의 동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세비스탯을 활용해 금융, 경제 부문과 코딩사업 등으로 사업 다각화에 본격적으로 나서 수익성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종민 기자 kjm@

바이오시밀러 임상 실험 등 신성장동력 확보

삼천당제약, 메자닌 활용 자금조달 확대

삼천당제약이 정관 변경을 통해 메자닌을 활용한 자금 조달 확대에 나설 전망이다. 실적과 재무 안정성이 뛰어난 상황에서 바이오시밀러 임상 실험 등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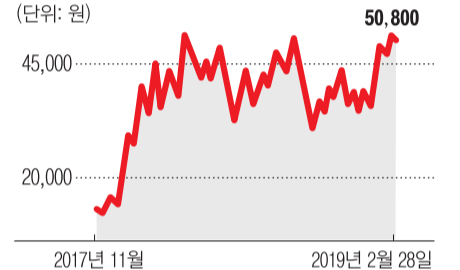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천당제약은 15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안건을 다룬다.

중전 정관에는 CB와 BW 발행과 관련해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CB(또는 BW)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주총에서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CB(BW)를 발행하는 경우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CB(BW)를 발행하는 경우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휴를 위해 그 상대방에게 CB(BW)를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관 변경을 희망하고 있다. 앞으로 CB와 BW 같은 메자닌을 통한 자금을 조달하려 할 때 한도에 구애받지 않으려는 속내로 해석된다.

삼천당제약은 메자닌 발행이 잦은 편은 아니다. 최근 수년간 매해 200억 원 이상의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올리는 상황에서 사채 발행으로 부채를 굳이 늘리면서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없었다. 실제 1943년 창립 이래 75년 만인 작년에서야 처음으로

삼천당제약 주가 추이



CB를 발행했다. 또 BW의 경우에도 2014년 이후 4년 만에 2회 차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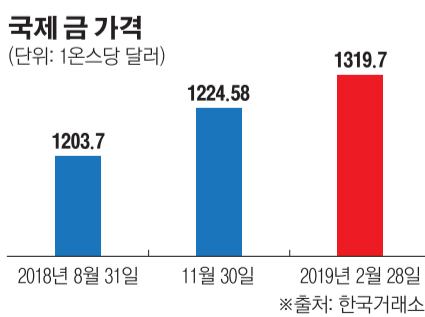
상황이 바뀐 것은 바이오시밀러 등 새로운 먹거리 사업을 벌이면서 사업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삼천당제약은 안과 용제에 특화된 전문의약품 업체이나 해외 진출 및 바이오시밀러 기업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지난해 대만 마이세넥스에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생산 기술 이전을 완료했고 올해 1월에는 일본 제약사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공급계약도 체결했다. 미국 FDA와 Pre-IND 미팅을 거쳐 올해 3분기에 임상 3상 시험 IND 승인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에 지난해 CB와 BW 발행을 통해 총 200억 원 규모로 자금을 조달했다. 모두 바이오시밀러 임상 시험과 시설자금에 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일단 실적과 재무 안정성이 뛰어나 메자닌 발행에 따른 부담도 적다. 삼천당제약의 부채비율은 작년 말 기준 27.6%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회사의 메자닌 활용을 주주 가치 하락보다는 미래 성장을 위한 우량자금 조달로 판단하고 있다.

조남호 기자 spdran@

금값 인상에 펀드 수익률도 ‘고공행진’

**증시 급락 후 안전자산 심리 반영
3개월 수익률 평균 12.55% 증가**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 가격이 연일 상승하면서 금 펀드의 수익률도 오르고 있다. 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설정액 10억 원 이상 펀드의 수익률을 집계한 결과, 지난달 28일 기준 금 펀드 11개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평균 12.55%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와 해외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각각 7.29%, 7.89%다.

최근 6개월 수익률도 12.46%를 기록, 손실 상태에 있는 국내 주식형 펀드(-3.03%)나 해외 주식형 펀드(-0.69%)보


다 높았다. 금 펀드의 수익률이 오르는 이유는 지난해 4분기부터 금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가 공시하는 국제 금 가격은 지난달 28일 기준 1온스당 1319.70달러로 3개월 전인 11월 말 대비 7.8% 올랐고 6개월 전인 8월 말과 비교해선 9.6% 상승

했다. 지난해 8월 17일 연중 최저치인 1174.93달러를 기록했던 금 가격은 10월 증시 급락 이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반영되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 반등에도 금값이 오르고 있다는 점은 이례적이다. 전문가들은 주요국들의 중앙은행이 경기 둔화 및 증시 변동성을 우려해 금 매입량을 늘리는 것을 금값 강세의 요인으로 꼽았다.

대신증권과 세계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량은 651.5톤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 1971년 미국의 금 태환 중지로 브레튼우즈 체제가 막을 내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빗썸 지수 (2019년 3월 3일 17:00, KST)

| 코인명 | 가격(원) | 전일대비 등락(원) | 코인명 | 가격(원) | 전일대비 등락(원) |
|--------|---------|---------------|----------|--------|---------------|
| 비트코인캐시 | 145,700 | 2,400 (1.7%▲) | 모네로 | 54,550 | 1,500 (2.8%▲) |
| 리플 | 349 | 2 (0.6%▲) | 비트코인골드 | 13,640 | -360 (2.6%▼) |
| 라이트코인 | 54,050 | 1,750 (3.3%▲) | 이더리움 클래식 | 4,723 | 61 (1.3%▲) |
| 대시 | 91,950 | 1,300 (1.4%▼) | 퀀텀 | 2,296 | 11 (0.5%▲) |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GTX 노선 건설 돌입... 인근 부동산 '들썩'

A노선 동탄~삼성 2021년 개통
 킨텍스 꿈에그린' 실거래가 3억 ↑
 '동탄 유림노르웨이숲' 경쟁 184대 1
 C노선 청량리~수원역도 주목

| 노선명 | 구간 | 진행상황 | 개통예정시기 |
|-----|---------------|----------------------------|--------------------------------|
| A노선 | 파주 운정~ 동탄 | 2018년 1월 착공 삼성~동탄 우선 착공 | 2021년(삼성~동탄) 2023년 말(운정~삼성) |
| B노선 | 인천 송도~ 남양주 마석 | 예비타당성 조사 중 | - |
| C노선 | 양주 옥정~ 수원 |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2021년 착공 예정 | 2026년 개통 예정 |



지난해 12월 27일 일산 킨텍스에서는 GTX A노선의 착공식이 열렸다. 2008년 처음으로 구상된 GTX A노선이 본격적인 건설에 돌입한 것이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GTX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인근 지역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 운정신도시부터 동탄신도시를 잇는 총연장 83.1km의 광역 급행철도인 GTX A노선은 평균 표정속도(열차가 운행하는 거리를 총운행 소요시간으로 나눈 수치의 속도) 100km/h, 영업최고속도 180km/h로 운영될 예정이다. 일반적인 서울 지하철의 평균 표정속도가 30km/h 안팎인 것을 생각해보면 GTX는 도심권을 관통하면서도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실제로

GTX A노선이 개통하면 킨텍스에서 서울 역까지 15분 이내로 접근이 예상되고 삼성 역까지는 2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해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도심까지 빠른 접근이 가능해진다.

사업진행 속도가 빠른 A노선은 동탄-삼성 구간이 2021년 개통할 예정이며, 이후 파주~삼성 구간이 2023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통할 예정이다.

양주를 출발해 수원까지 이어지며 수도권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C노선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이 노선은 지난해 12월 11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GTX사업이 본격도에 오르면서 인근 지역의 부동산 시장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GTX 노선이 들어서는 지역의 아파트 값은 이미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A노선의 킨텍스역과 가까운 킨텍스 꿈에그린 아파트는 2015년 5월 분양됐다. 당시 전용면적 84㎡의 분양가는 4억9060만원 수준이었다.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에 따르면 1월 현재 이 단지의 전용 84㎡ 분양권은 7억8722만 원에 거래됐다. 아직 단지가 입주에 돌입하지 않았음에도 3억 원 가깝게 오른 것이었다. 입주 이후 GTX 노선이 개통할 예정이라 상승 여력은 아직도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청약시장에서도 GTX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의 인기는 뜨겁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가장 뜨거운 청약성적을 기록한 곳은

GTX A노선 동탄역 인근에 위치한 '동탄 유림노르웨이숲'이었다. 이 단지는 도보로 동탄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주목받았다. 실제 청약에서도 206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만8029명의 청약자가 몰리면서 평균 184.6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GTX는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은 대규모 교통환경 구축 사업으로 수도권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광역교통망"이라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으로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정차역 인근에서 분양에 나서는 단지에도 관심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말을 기점으로 A노선과 C노선 사업이 본격도에 오르면서 올해도 GTX노선 인근에서 분양에 나서는 단지가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A노선이 정차하는 성남역 인근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힐스테이트 판교역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GTX역뿐만 아니라 신분당선 판교역과 직접 이어지는 단지로 강남역으로도 10분대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A노선의 기점인 파주 운정신도시에서는 중흥건설이 3월 예정 중흥S-클래스를 분양한다. 1262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GTX 운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동탄역 인근에서는 대방건설이 화성동탄 2차 대방디엠시티를 분양할 계획이다. 아파트 531가구와 오피스텔 820실로 이뤄진 주상복합 단지로 동탄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 대방건설은 C노선의 기점인 양주 옥정신도시에서도 아파트를 분양한다.

C노선 정차역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곳은 단원 청량리역과 수원역 인근이다. 롯데건설은 청량리 4구역에 재개발하는 주상복합단지인 롯데캐슬SKY-L65를 분양할 계획이다. 최고 65층의 초고층 단지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될 전망이다. 수원역 인근에서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수원 고동주거환경개선 A1블록에서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를 분양할 계획이다. 총 4086가구 규모로 수원 시내 아파트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중개수수료 아끼자” 부동산 직거래 급증

떨어진 집값·전세금 만회 위해
 경기·인천 작년보다 23% 늘어



최근 주택 거래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며 직거래 매물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3일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이하 피터팬)에 따르면 강릉전세, 역전세 등 부동산 시장 위축의 진원지로 꼽히는 지방과 경기·인천의 직거래 매물은 서울에 비해 1년 전보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원하는 시기에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매물 노출 수단을 다양화함과 동시에, 떨어진 전세금 만회를 위해 중개수수료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라는 해석이다.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플랫폼에 등록된 주거용 직거래 매물을 △서울 △경기·인천 △지방의 3가지 지역군으로 살펴보면, 올 1월을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서울은 2.75% 증가한 반면 경기·인천은 23.38%, 지방은 22.3%로 약 20% 이상 더 올랐다.

특히 경기·인천 지역 아파트 직거래

40.04%, 38.95%로 늘어났다. 서울은 월세 매물은 줄어들었지만 전세와 매매는 각각 19.07%, 12.39% 증가했다.

김남이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팀장은 "직거래 시장은 정부 정책보다는 실 수요 위주의 이사철 시즌별 흐름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 거래 실종, 신규 입주 물량 증가 등의 시장 분위기가 장기화되며 영향을 받고 있다"며 "지방과 경기·인천의 매매와 전세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만큼 직거래 수요자들은 부동산의 안전성을 잘 검토하며 계약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증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피터팬이 내놓은 '안심직거래 서비스' 이용자 수도 1년 새 큰 폭으로 늘었다. '안심직거래 서비스'는 출시 초기인 지난해 1월 신청자 수 24건으로 시작됐다. 3월부터는 월별 40건 이상의 가입 건수를 보이다 지난해 8월 50건을 넘어섰고 11월 이후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올 1월에는 78건으로 출시 이후 최대 이용자 수를 보였다. 1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수치로는 3배 이상의 성장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서울 아파트 전셋값 0.25% '뚝'

입주물량 늘어 2월 통계 첫 하락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전셋값이 2월 통계로는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월 한 달간 전셋값은 0.25%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1년 통계 작성 이래 2월 변동률은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부동산114는 최근 수년간 전셋값이 크게 오른 데다 서울과 수도권 입주물량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2월 변동률 중에 가장 낮았던 수치는 2012년 0.00%였다.

지난달 마지막주 서울의 전셋값은 0.11% 떨어졌고, 전국 기준으로는 0.06% 하락했다. 서울 전세시장을 보면 수요가 없어 전세 매물이 적체된 곳과 새 아파트 입주 영향을 받는 곳이 크게 떨어졌다. 자치구별로는 △서초(-0.37%) △양천(-0.21%) △강남(-0.20%) △용산(-0.18%) △강동(-0.12%) △강서(-0.12%) 동작(-0.12%) 등이 하락했다.

서초는 반포동 래미안반포퍼스티지, 잠

원동 신반포11차, 서초동 서초래미안 등이 1000만~7500만 원 떨어졌다. 양천은 목동삼익, 목동신시가지5단지, 신정동 목동현대, 목동우성2차 등이 500만~2000만 원 내렸다. 강남은 개포동 주공고층7단지, 일원동 한솔, 대치동 대치현대 등이 1000만~6500만 원 하락했다.

경기·인천은 △의왕(-0.64%) △의정부(-0.32%) △양주(-0.30%) △남양주(-0.16%) △안양(-0.16%) △수원(-0.14%) 등이 하락했다. 신도시는 △산본(-0.14%) △동탄(-0.11%) △평촌(-0.11%) △일산(-0.04%) △분당(-0.03%) 등이 하락했다. 산본은 산본동 설악주공8단지과 가야5단지주공1차가 500만 원 정도 떨어졌다.

서울아파트값은 0.04% 떨어졌다. 15주째 하락세다. 재건축 아파트는 0.06% 하락해 17주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매수세가 없어 각각 0.03%, 0.02% 하락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됐지만

건설업계 "대북사업 준비 그대로 추진"

전 세계가 주목하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예상치 못하게 결렬되면서 남북경협에 기대를 걸었던 건설업계도 실망한 모습이 역력하다. 건설업계는 남북경협이 시작될 경우를 대비해서 TF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달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은 제재 완화와 해제를 요구했지만 이번에는 어떤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실상 협상 결렬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북한 내 SOC(사회기반시설) 독점 개발 사업권을 가진 현대그룹 자회사 현대아산은 회담 결과 시나리오별 총출한 '로드맵'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대북 사업 재개에 대비해 이달 중 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가를 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결렬로 당분간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은 요원해지게 됐다.

건설사들 역시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실제로 대형 건설사들은 북미회담 소식이 전해지자 TF조직을 정비하고 시장 선점에 대비해 왔다.

현대건설은 경협지원단을 꾸렸고 대우건설도 지난해부터 북방사업 지원팀을 신설해 사업 검토를 준비해 왔다.

삼성물산, GS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한화건설 등은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이후 대북사업 준비를 위한 TF팀 구성을 완료했으며 대한건설협회도 50여 개 건설사가 참여하는 한반도포럼을 꾸린 바 있다.

이에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회담 결렬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당황스럽다"면서 "하지만 남북 경협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영향도 많고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만큼 당분간은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하던 대로 사업 준비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금주의 분양캘린더

3월 첫째 주에는 전국에서 2565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주에는 경기 시흥시 월곶동 '시흥월곶역블루밍더마크', 충남 아산시 탕정면 '탕정지구시티프

라디움' 등이 분양을 시작한다.

당첨자 발표는 3곳에서 진행된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역해링턴플레이스', 경기 안양시 비산동 '평촌래미안푸르지오'가 7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이어 8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도 당첨 발표를 진행한다.

이주 계약이 진행되는 단지는 전남 완도

군 완도읍 '완도군내(영구임대)' 1곳이다.

건본주택은 3개 사업장에서 개관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 수원시 고동동 '수원역 푸르지오자이',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아펠리체(오피스텔)', 강원 원주시 무실동 '원주더샵센트럴파크' 등이 건본주택을 열어 봄 분양시장의 개막을 알릴 예정이다.

| 날짜 | 구분 | 시 | 구시군 | 읍면동 | 아파트명 |
|------------|----|-----|-----|--------------|-------------------|
| 3/4 (월) | 접수 | 서울 | 구로구 | 구로동 | 송은노블리안 1순위 (당해지역) |
| | | | 노원구 | 공릉동 | 태릉해링턴플레이스 2순위 |
| | | | 동작구 | 사당동 | 시당더원캐슬 시당더원캐슬 |
| | 계약 | 전남 | 완도군 | 완도읍 | 완도군내(영구임대) (-3/6) |
| | | | 완도군 | 완도읍 | 완도군내(영구임대) (-3/6) |
| | | | 완도군 | 완도읍 | 완도군내(영구임대) (-3/6) |
| 3/5 (화) | 접수 | 서울 | 구로구 | 구로동 | 송은노블리안 1순위 (기타지역) |
| | | 경기 | 시흥시 | 월곶동 | 시흥월곶역블루밍더마크 1순위 |
| 3/6 (수) | 접수 | 서울 | 구로구 | 구로동 | 송은노블리안 2순위 |
| | | 경기 | 시흥시 | 월곶동 | 시흥월곶역블루밍더마크 2순위 |
| 3/6 (수) | 접수 | 평택시 | 합정동 | 평택뉴비전엘크루 1순위 | |
| | | 충남 | 아산시 | 탕정면 | 탕정지구시티프(프리미엄) 1순위 |

(주1) * = 오피스텔, * =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부동산114

세번째 소송 휘말린 🐟 ‘상어가족’

美 원곡자 조니 온리, 스마트스터디 상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빌보드 차트 38위에 오르며 세계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어가족’ (아기상어)이 다시금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상어가족은 삼성출판사의 자회사인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말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내놓은 동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동요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는 4일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소가는 표절로 인한 손해액 일부만 산정한 3000만 원 수준이다.

상어가족이 법적 다툼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조니 온리는 핑크퐁의 상어가족이 2011년 자신이 만든 ‘베이비 샤크(Baby Shark)’를 표절했다며 법원에 지난해 6월과 10월 두 차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첫 번째 소송에서 소송비용 담보

제공이 문제가 돼 소를 취하했다. 민사소송법상 외국인은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보증보험 증권을 공탁하려 했으나 외국인이어서 증권 공탁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이 조니 온리 측 설명이다. 당시 소가가 1억 원에 달해 소송비용에 대한 현금 공탁의 부담이 컸던 만큼 조니 온리 측은 소가를 500만 원으로 낮춰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다.

2차 소송에선 소액사건심판법이 문제가 됐다. 피고 측이 “원고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했기에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정작 표절 여부에 대한 공방은 뒷전이 됐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이 소송을 취하하고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소가를 3000만 원 이상으로 올려 정식 소송을 제기하면서 3차 전으로 이어졌다.

조니 온리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변호사는 “절차적인 부분은 주된 쟁점이 아닌데 피고 측에서 표절 여부 등 실제적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며 “저작권 침해 여부에만 집중하고 싶어서 부득이하게 소송을 취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두 차례 소송에서 발목을 잡았던 소송비용 담보 제공 문제와 소액사건심판법 문제가 해결된 만큼 조니 온리 측은 더 이상의 취하 없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상어가족이 베이비 샤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추가 소송에 나설 계획을 내비쳤다. 정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일부 청구에 불과해 법원에서 정확한 손해액수가 밝혀지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별도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며 “승소 시 사용금지에 대해서도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한솔 기자 charmy@



‘유치원 개학 연기’ 뿔난 학부모
윤인시 학부모 100여 명이 3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사립유치원’들은 각성하라’며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를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 카페서 유료 동영상 무단 게시 카카오톡,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 없다”

대법, 원심판결 뒤집어

삭제할 게시물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았다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올라온 것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방조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손 씨가 카카오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당구 관련 온라인 강의 동영상 제공, 당구용품 제조 등의 사업을 하는 손 씨는 카카오톡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손 씨는 유명 당구 선수 출신 강사가 출연하는 당구 강좌 동영상을 유료로 제공했는데, 카카오톡 회원들이 영상을 무단으로 올려 저작권을 침해했으며 카카오톡은 이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카카오톡 측이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손 씨가 카카오톡에 보낸 내용증명에는 카페의 대표주소만 기재돼 있었으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영상을 특정할 자료가 부족했다. 자체적으로 파악한 게시물을 삭제한 카카오톡은 영상을 특정해 달라는 요청을 보냈으나 손 씨는 답변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카카오톡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카카오톡이 관련 동영상을 삭제하고, 업로드되거나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손 씨의 책임도 인정해 배상액 규모를 2억8000만 원으로 줄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부작위에 의한 방조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손 씨가 제공한 검색어 등으로 검색되는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했는지를 명확히 알기 어려웠고, 카카오톡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서울시, 23만1287명 모범납세자 선정

서울시는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23만1287명을 2019년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모범납세자 23만1287명은 2011년부터 최근 8년간 지방세(모범납세자 선정 대상 5개 세목)를 납부한 668만6000명의 3.5%에 해당한다. 이 중 1만3834명(6.0%)은 10년 이상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모범납세자 중에는 세입 기여도 및 지역 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자치구 추천을 받아 선정한 194명의 유공납세자도 포함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시금고(신한·우리) 대출 시 최대 0.5%의 금리인하와 적립식연금 금리우대 외에 20여 종의 각종 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시 5%의 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가

받는 혜택에다가 1년간 서울시설공단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혜택도 받게 된다.

모범납세자 선정 여부는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인 ETAX 홈페이지, 세금납부 앱(STAX)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세, 주민세 등 고지서에 병기돼 안내되며 유공납세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된다.

조조의 서울시 세무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한 납세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서울시 모범납세자가 자긍심이 고취되고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유공납세자 194명 중에서 선발된 자치구 대표 50명에게 직접 표창장을 수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김진희 기자 jh6945@

서울 319곳 고3 무상급식

서울시는 4일부터 319개 고등학교 3학년 8만47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학교 무상급식을 본격 확대 시행한다. 이를 위해 5688억 원이 소요되며 서울시(30%), 자치구(20%), 교육청(50%)이 재원을 분담한다.

서울시는 319개 고등학교 3학년 8만4700명, 국·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 37개교 2만415명에게도 친환경학교 무상급식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고등학교 3학년부터 연차별로 1학년씩 확대 실시된다.

중전 공립초등학교(대안학교 포함) 563개 41만 명, 국·공·사립중학교 383개교 20만9000명에게 무상급식이 제공됐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사립초와 국제중은 의무교육 대상임에도 사립학교라는 점 때문에 무상급식에서 제외됐다. 김진희 기자 jh6945@

재미 공감 행복

BRAVO My Life

정기구독하세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챔잼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챔잼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챔잼 TV)

구독 문의 (02) 799-2680

한반도 평화의 긍정적 효과는 '담론 아닌 현실'



김남현의 **알기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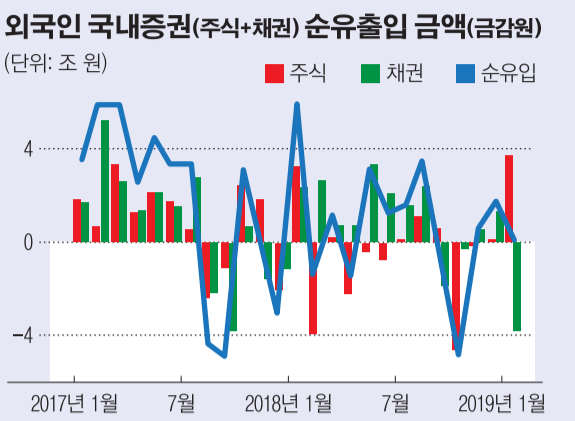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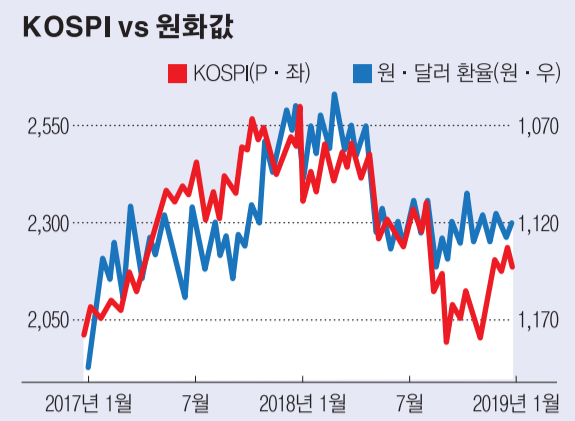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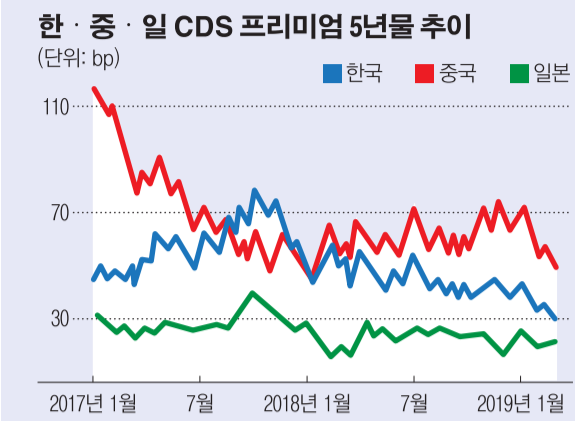
지난 주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면서 패자를 불렀던 사람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비롯한 일본이다. 더불어 국내 일부 진영에서도 기뻐했다 하니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한반도 평화는 전 세계에 하나 남은 냉정 체제의 해체나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 경제의 돌파구라는 거대 담론까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이미 소소한 우리 일상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을 뿐이다. 우리 호주머니에서 내 돈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이미 한반도 평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불가결이기에 때문이다.

◇국내 자본시장에 깊숙이 파고든 코리아디스카운트 = 실제 북미 정상회담이 조기 종료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자본시장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다. 지난달 28일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는 39.35포인트(1.76%)나 급락하며 지난해 10월 23일(-55.61포인트, -2.57%)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날 날아간 시가총액만 5조5965억 원에 달한다.

이명박(MB)정부는 출범 초기 코스피 지수 3000을 장담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오랜 기간 2000선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여러 요인이 있었겠지만 남북관계 경색도 한몫했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평가다.

지지부진하던 코스피지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정부 출범을 계기로 본격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후 평창 동계 올림픽을 맞아 남북 간 해빙무드가 절정에 이르렀던 지난해 1월 29일 2598.19포인트(종가 기준)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이후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면서 올 초 한때 2000선이 무너지



기도 했지만, 미중 무역협상 진전과 2차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 등이 작용하면서 코스피는 2200선을 회복하기도 했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자금 역시 북한 리스크와 무관치 않다.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불거지며 실제 전쟁 우려감이 컸던 2017년 하반기 외국인은 국내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무더기로 자금을 빼갔기 때문이다.

특히 신흥국 대접을 받던 주식과 달러

다. 신용부도스와프란 투자 시 지불해야 할 보험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도위험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CDS프리미엄이 높다는 것은 같은 투자자산에 투자하더라도 그만큼의 돈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과 채권에 투자할 메리트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최근 CDS프리미엄은 2차 북미 정상회

북미정상회담 소식에 'CDS' 금융위기 후 첫 20bp대로 떨어져 회담 성과 없이 끝나자 코스피 1.76%↓ ... 국내 자본시장 '패닉' 2017년 북핵·미사일 불거지자 外人 국내 주식·채권 대거 팔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서 선진국 지위를 얻었던 채권시장에서까지 자금을 빼간 것은 가볍게 볼 일은 아니었다. 실제 2017년 9월엔 3조7320억 원어치나 자금을 뺐고, 그해 11월엔 보유금액 100조 원이 8개월 만에 무너지기도 했다.

국가부도위험을 가늠하는 신용부도스와프(CDS)도 지중학적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2017년 하반기 한국물 CDS프리미엄이 중국보다 높게 형성됐기 때문이다. 한국 국가신용등급(Aa2, 무디스 기준)이 중국(A1)보다 두 단계나 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외의 현상이 벌어진 셈이

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20bp대로 진입했다. 실제 북미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달 27일 한국 5년물 CDS프리미엄은 29.26bp(1bp=0.01%포인트)까지 떨어지며 2007년 11월 2일(27.7bp) 이후 11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28일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30.45bp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이후 양국 간 협상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1일 29.16bp로 다시 떨어졌다.

◇주식·부동산값은 오르길 바라면서 원화값은 왜 떨어지길 바라나 = '주식과 부동산값은 오르길 바라면서 원화값은 왜 떨어

지길 바라나?' 지금은 현역에서 은퇴한 모 금융기관의 기관장이 4년 전쯤 기자에게 해준 말이다. 경제가 발전하길 바라고 실제 그렇다면 원화값도 그에 걸맞게 상승(원·달러 환율 하락)해야 한다는 논리다.

생각해 보면 그동안 원화값이 떨어지길(원·달러 환율 상승) 바랐던 것은 우리 경제가 오랜 기간 수출주도형 성장을 해왔기 때문이다. 원화값이 떨어지면 수출기업으로서 그만큼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서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원화값이 떨어지면 좋겠지만 우리 수출상품들이 갖춰야 할 경쟁력은 이미 가격경쟁력을 넘어섰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수출기업들의 낙수 효과도 이미 크지 않다는 점에서 굳이 숫자를 들먹이지 않으려 한다.

아울러 원화값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려는 정책이 초래하는 부작용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바로 2008년 MB정부 시절 겪은 키코(KIKO) 사태다.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거대 파도의 영향도 있었지만, 당시 MB정부가 취한 747정책(7%성장, 소득 4만 달러, 경제 세계 7위 대국)에 따른 저금리·고환율(원화값 하락)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환헤지 파생상품인 KIKO에 투자해 국내 기업들이 입은 손실액만 금융감독원 추산 1조 원(39개 대기업 2460억 원, 480개 중소기업 7200억 원)에 달한다.

반면 원화값 상승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낮춰 국내 물가 안정에도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국제유가가 그대로라고 가정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하락(원화값 상승)한다면 주유소에서 넣는 기름값이 떨어질 수 있다. 농축수산물 수입물가도 떨어지면 서장바구니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또 해외여행에 대한 부담감도 줄일 수 있다. 최근 교육문제로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낸 기러기야빠도 많은 상황이다. 원화값이 오를수록 이들에게겐 유리하다. 실제 지난해 유학 및 연수와 일반여행 경비로 지급한 돈은 319억7330만 달러(35조 1802억 원)로 5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북한 리스크가 한창이던 2017년 하반기 1150원대까지 치솟았다(원화값 하락). 당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원화값만 유독 약했다. 이후 남북 간 해빙무드와 함께 빠르게 하락(원화값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1060원을 밑돌기도 했다.

북미 간 합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국내외 해외투자은행(IB)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막판 급등하며 5.6원(0.50%) 오르기도 했다(원화값 하락).

평화와 냉전, 그 선택에 따라 우리의 일상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사회적 기업 창업과 경영의 모든 것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

바이어로 사회적 기업 창업 시대. 정부 지원과 각종 육성 정책 덕분에 청장년, 퇴직자 등 많은 사람에게 사회적 기업은 도전할 만한 대안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육성 프로그램은 문전성시를 이룬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절대 만만하지 않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하며,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할까? 현실은 대충일과 다르다. 실패들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공공단체가 제공해주는 대우일 말고 실리적인 정보나 경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사회적 기업은 과연 나의 이상과 현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는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으며, (주)KODS 이나현 대표가 10년간 현장에서 겪은 창업과 경영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은 실용 대우일 이자, 후속한 성장일기이다. CDS의 '창업부터 성장 단계별 구체적인 제시와 모델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하려는 분들의 고민에 동행하고 싶은 선배로서의 책임감에서 출판에 기술했다.

이나현 대표도 사회적 기업 초항가에는 도움이 될 정보

14년 시음 / 2019년 1월 21일 발행 / 214,800원

10권의 책 속에 담긴 1,000권을 읽어내는 느낌의 철학

HOW 10권을 읽고 1000권을 읽는 책 읽기 기술

어쩌다 보면 책을 다 읽어도 가슴에 남는 구절 하나 없다면 당신은 당분간 책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읽기의 즐거움을 찾아보면 당신에게 독서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할 뿐, 같이 있는 위기로 자기 성장의 길을 찾게 한다.

이명훈 저 / 232쪽 / 4880원 / 215,800원

김미숙의 건강관리 비법?!

저는 **차가버섯**으로 걱정 없어요

VitaminHouse 1588-8529 <http://www.vhmall.net>

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시베리안 차가버섯



“AI로 운용되는 ETF, 4~5월 뉴욕증시 상장”

김형식 크래프트테크놀로지스 대표이사

인공지능이 딥러닝 통해 시장 상황 판단 종목·비중 조절
운용자산 1兆대 목표... 비금융 AI 솔루션·컨설팅 도전

“기술력으로 정면 승부하기 위해서 미국 시장을 선택했다.”

김형식(41) 크래프트테크놀로지스(이하 크래프트) 대표이사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으로 100% 운용되는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국가로 미국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시장에는 AI가 직접 운용하는 ETF는 총 4개 수준이다. 초기 시장인 만큼 블랙록이나 JP모건 등 글로벌 기업들과 동일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미국시장을 직접 노크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준비를 모두 마치고 지난달 중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 두 달간의 심사 기간을 감안하면 크래프트의 AI ETF 2종은 4~5월 사이 뉴욕시장에 상장될 전망이다.

크래프트의 AI ETF는 미국 대형주 지수와 유사한 종목 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각 주식의 비중을 딥러닝 시스템이 조

절해 초과수익을 추구한다. 김 대표는 “S&P500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이미 수십조 달러 규모에 달한다”면서 “지수를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AI가 딥러닝을 통해 시장 상황을 판단하고 더 객관적으로 비중이나 종목을 조절한다”고 말했다.

크래프트가 AI ETF를 상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함께 캐나다에서 AI ETF를 선보인 바 있다. 김 대표는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규제 문턱이 낮았던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AI ETF를 상장시켰던 것”이라면서 “최근 미국도 AI를 이용한 액티브ETF 규제가 크게 완화돼 이제 미국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016년 1월 크래프트를 창업했다. 서울대 전자공학부를 졸업한 김 대표는 대학원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했다. 대학원 졸업 직전 마지막 학기에 친구들과 우연한 기회에 퀀트 모델 알고리즘 트레이



김형식 크래프트테크놀로지스 대표가 27일 서울 성동구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고이안 기자 photoeran@

딩 프로그램을 만들고 자기자본을 운영한 것이 창업의 길로 이어졌다. 2013년부터 틈틈이 연구해왔던 AI 관련 기술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발전시켜 놓은 기술을 접목하면서 자신만의 AI 기술 개발에 집중

했다.

크래프트의 기술력을 가장 먼저 알아본 것은 미래에셋자산운용 회장으로 현재 2대 주주다. 김 대표는 “인프라 등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았다”며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손잡고 캐나다에서 AI ETF를 상장했던 경험을 발판삼아 미국시장 진출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16년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시작한 크래프트는 최근 1000억 원의 기업가치 평가를 받음 만큼 성장했다. 지난해 말 신한은행의 10억 원 투자금 유치에 이어 최근 100억 원 규모의 투자도 유치했다.

김 대표는 AI ETF가 상장되면 운용자산(AUM)을 1조 원대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 운용을 통한 ETF가 기존 ETF 대비 꾸준한 초과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게 입증된다면 전 세계 ETF 수요 일부를 가져오는 건 시간문제라고 말한다. 당장 국내에서 해당 ETF를 유통할 수 있는 채널도 확보한 상태다.

그는 “ETF 상장이 끝이 아니라 이후 계속 관련 라인업을 구축할 계획”이라면서 “금융권 외에 비금융 AI 솔루션과 컨설팅 영역으로 보폭을 넓히는 데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농어촌공사 신임 사장에
김인식 前 농촌진흥청장

김인식(64·사진) 전(前) 농촌진흥청장이 3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선임됐다.



김 사장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등에서 오래 활동한 농업 전문가다. 특히 농업인의 날 제정, 농축산자조금 제도 도입 등에 앞장서 왔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이 같은 역할을 인정받아 청와대 농어촌비서관, 농촌진흥청장 등도 지냈다. 김 사장은 경남 진주 출신으로 진주고와 경상대 축산학과를 졸업했다.

김 사장의 임명으로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11월 최규성 전 사장 사퇴 이후 6달 만에 리더십 공백에서 벗어나게 됐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오일천사(01L1004)봉사단

석유관리원, 세종 어린이 초청
재능기부 공부방 운영

한국석유관리원은 방학을 맞은 세종시 지역 어린이들을 지난달 28일 초청해 석유와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재능기부 공부방(사진)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조치원읍에 소재한 석유관리원 대전세종충남본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초등학교 3~4학년 10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녹색시대 프로젝트(지역사회와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이해) △원유 및 석유의 이해 △가짜석유 사용 폐해 △시험실 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이 직접 참여해 석유관리원이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K-Petro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와 관련해 일회용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교육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폴더블폰·롤러블TV, 삼일절 기념식에 깜짝 등장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최근 공개한 폴더블폰과 롤러블TV가 ‘3·1절 100주년 기념식’에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 여야대표, 일반 국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선언서 낭독이 진행됐다.

기념식 무대에는 LG전자의 롤러블 올레드 TV와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이 차례로 등장했다.

현장 낭독의 ‘첫 주자’인 박유철 광복회장은 무대에 설치된 롤러블TV 화면을 통해 독립선언서 일부를 읽어 내렸고, ‘마지막 주자’인 경기고·보성중·보성고·중앙고 학생 6명은 폴더블폰을 들고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을 차례로 낭독했다.

LG전자의 롤러블TV인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R’는 올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00주년 3·1절 중앙기념식에서 학생들이 삼성전자가 최근 발표한 ‘갤럭시 폴드’를 이용해 100년 전 작성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CES 2019’에서 처음 공개돼 극찬을 받았다. 이 TV는 세계 최초로 TV 스크린이 말리도록 설계됐다.

또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는 접었다 펼 수 있게 한 스마트폰으로,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삼성 갤럭시 언팩

2019’에서 공개됐다.

두 제품은 아직 시중에 판매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LG전자와 삼성전자는 정부 요청에 따라 특별히 이날 기념식을 위해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태성 기자 tskwon@



‘위안부 피해’ 곽예남 할머니 별세

광주·전남에 유일하게 생존해 있던 위안부 피해자 곽예남 할머니가 2일 향년 94세로 별세했다.

1월 28일 고(故) 김복동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33일 만이다. 이로써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22명으로 줄었다.

곽 할머니는 1944년 봄 만 열여섯 살의 나이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 일본의 패전으로 풀려난 이후 곽 할머니는 중국에서 60여 년을 살았다. 2004년에 가족들의 노력으로 고국에 돌아온 곽 할머니는 2015년 12월 폐암 4기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부음

▲ 박명희 씨 별세, 장영한(YTN 대전 지국 카메라 부장)·경애(청주 상당초 교사)·영진(충북도청 유기농팀장) 씨 모친상 = 3일, 충북 청주성모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5일 오전, 043-210-5444

▲ 김종하(전 대한체육회장·전 대한핸드볼협회장) 씨 별세 = 3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5일 오전 7시, 02-3410-3151

▲ 윤복남 씨 별세, 양원(연합뉴스 전 부산지사장) 씨 모친상 = 2일, 부산 수영구 남천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5일 오전 7시, 051-626-4004

▲ 유재분 씨 별세, 김대직·명직(한양대 교수)·정모·순모·순애 씨 모친상, 양영주·박경선 씨 시모상, 이희원·이종구·이수천 씨 장인상 = 2일,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4일 오전 5시, 02-2290-9452

한국전파진흥협회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가’ 국비지원 과정 44명 수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한국전파진흥협회(RAP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술기획평가원(IITP)이 주관하는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육성사업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전문가’ 과정(서울·야산)을 2018년 9월 17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주 5일, 830시간 교육과정 44명에 대한 수료식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전문가 과정은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대규모 소프트웨어 기술인재 채용 수요가 존재하는 클라우드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6개월간의 집중 교육과 프로젝트 멘토링을 통해 SW 서비스 개발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었다.



지난달 28일 한국전파진흥협회는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전문가 과정’ 수료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번 교육과정에는 1명의 조기 취업자를 배출했으며, 사전 13개 채용예정기업 중 드림라인 주식회사, 한컴지메디 주식회사 등 정보통신기술 분야 지명도 및 성장 가능성이 높고 연간이직률이 5% 미만인 연계 기업에 총 5명이 채용 확정을 한 상태다.

수료 이후에도 단계별 지원을 지속적으로 진행 관리하여 수료생 44명에 대한 호

과적인 채용 연계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전파진흥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청년실업 해소 및 고용확대 정책과 업계에서 원하는 산업체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 과정을 통해 명실상부한 ICT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밝혔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김성희의 인문경영



작가

“상식이 통하고 음악 콘텐츠와 그 소비자가 정당한 평가를 받는 그날까지, 저 또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갈 겁니다. 격하게 분노하고, 소소하게 행복을 느끼면서 말입니다.” 성공한 리더로서 훈수를 두며 열외, 유체이탈 화법을 쓰지 않은 방시혁 대표의 축사,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그의 진솔한 다짐이 공감을 자아낸다.

방시혁 대표의 ‘탈(脫)꼰대 소통법’

방시혁 박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서울대 졸업식 축사가 연일 화제다. 그가 종사하는 엔터테인먼트업 자체가 젊은이들의 관심 분야이고, 경험 자체가 다이내믹해서 관심을 끌 수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가 하면 소신 발언을 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제도권 인사가 아니어서 자유로운 발언이 가능했다는 해석도 있었다.

그의 연설이 파격적·도발적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메시지에 천착해 보면 일반 인사들과 대동소이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공공선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란 이야기였다. 그날 식장에서 같이 축사를 한 다른 인사들, 그보다 앞서 유한대학교에 가서 축사를 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도 유사했다. 현재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고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도전하고 기여하라는 것이었다(이는 국내 대학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미국 대학의 졸업식 축사에서 단골 메뉴라고 한다.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졸업식 축사의 3분의 2 이상이 이 같은 레퍼터리라고 할 정도다). 그런데도 방 대표의 축사가 남다른 감동을 준 까닭은 무엇일까. 그의 축사는 탈(脫)꼰대

의 소통법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첫째, 반권위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라. 사람들은 권위보다 반권위적인 이야기를 들려줄 때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연다. 이번 방 대표 축사의 히트 방점은 ‘꿈이 없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더라’는 초반 에피소드였다. “구체적인 꿈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면 그때그때 하고 싶은 것에 따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류의 고백은 신세대 코드에 딱 맞았다.

여러 개의 토막 이야기보다 하나의 플롯을 가진 이야기로 구체적으로 전달하라. 단 ‘눈물 젖은 빵’ 류의 이야기, “나도 청춘기에 방향과 고민과 회의를 많이 겪었습니다”류로 뭉뚱그려 이야기하는 것은 금물이다.

둘째, 핵심 단어를 새롭게 정의하라. 익숙한 단어를 쓰면서도 새롭게 정의 내리면 표현이 참신해져 꼰대스럽지 않다. 방 대표의 축사 키워드는 분노와 행복이었다. 분노와 행복, 서로 모순되는 두 단어를 함께 묶어서 삶의 의미의 양대 기둥으로 묶은 것도 참신했다.

분노와 행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부한 언어들이지만 그는 새롭게 정의 내렸

다. 나름 민주화에 앞장서왔다고 자부하는 586세대들은 ‘왜 분노하지 않는가’라며 사회 정의에 무관심해 보이는 청년층을 탓했다. 한편에선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며 청년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한다면 ‘이 또한 다 겪게 마련인 성장통이니 참을 것’을 은연중 강조하기도 했다. 청년들은 분노론에 대해선 극심한 취입난 등 현실론을 들이대며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여유로’라고 반발하기 일쑤였다. 또 ‘아프니까 청춘’의 공감론에는 ‘아프면 환자, 너나 아프세요’라며 거부감을 표했다.

방 대표는 이 같은 기존 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단어 정의를 내린다. 행복을 감정적 행복과 이성적 행복으로 분류하고 “우리 회사가 하는 일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특히 우리의 고객인 젊은 친구들이 자신만의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더 나아가 산업적으로써 이를 발전시키고 종사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즉 청년층이 ‘행복’ 하면 떠올리는 소확행(작지만 확실하게 느끼는 행복)과

분명히 줄을 긋는다.

분노 역시 마찬가지다. 나의 이불리(利不利)를 위해 불만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 불공정, 불합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진정한 분노라고 의미를 규정한다. 주변의 잘못된 관행 등 개인에게 상처를 주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대한 분노란 점에서 방 대표의 의식은 신세대와 통했다. 이들은 불공정, 차별, 위선의 이중성에 더 분노를 표하는 세대가기 때문이다.

셋째, 다짐형으로 말하라. 기성세대를 꼰대라고 비판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내가 해봐서 아는데’의 과거형으로, 본인을 열외로 두기 때문이다. 방 대표의 축사를 다시 살펴보자. 그는 결코 성공한 리더로서 훈수를 두며 열외, 유체이탈 화법을 쓰지 않는다. ‘상식이 통하고 음악 콘텐츠와 그 소비자가 정당한 평가를 받는 그날까지, 저 또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갈 겁니다. 격하게 분노하고, 소소하게 행복을 느끼면서 말입니다.’ 이제 ‘나는 성공한, 나이 든 사람으로서 잘하고 있으니 나처럼 해보라’는 것보다 ‘나도 여전히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진솔한 다짐이 공감을 자아낸다.



공병호의 독서산책

•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법, 입법 그리고 자유’

‘정부 개입주의의 덫’ 헤어나게 할 등불

날로 빨라지고 가벼워지는 시대에 묵직한 책을 읽어낼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갖기는 쉽지 않다. 그래도 지적 토대를 튼튼히 하는데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한계를 극복하는 도전을 할 필요가 있다. 젊은 날 세계관을 정립하는데 크게 도움을 준 작가가 자유주의 사회철학자이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이다. 그의 주옥같은 저서들 가운데 도전해 볼 만한 책이 ‘법, 입법 그리고 자유’이다.

그동안 3권의 날권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선보인 것들이 한 권으로 깔끔하게 묶여져 새로 출간됐다. 무엇보다도 오늘날처럼 입법이 성행하는 시대에 이 책은 나라의 앞날에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부 개입주의와 민주주의의 영향력이 날로 드세어지는 이 시대에 이 책은 우리 사회에 미약하나마 등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책의 끝에 소개된 하이에크의 ‘인간 가치의 세 가지 근원’이란 짧은 논문은 젊은

날의 필자에게 반듯한 세계관의 정립이란 선물을 안겨준 기념비적인 논문이다.

이 책은 어떤 사회가 자유 사회로서 계속해서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시민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독자들에게는 사회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 즉 사회과학의 진리를 예리하게 다룬 책이다. 하이에크는 서문에서 “모든 사회제도는 용의주도한 설계의 산물이고 또 산물이여야 한다”는 가정에 바탕을 둔 ‘구성주의적 합리주의’가 사실로 보나 규범으로 보나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것인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정부 개입주의의 거센 파고 이면에 놓여 있는 것이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에 대한 믿음이다. 정책이나 제도를 통해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혼란된 정치인이나 정책가들의 지적 토대에 대한 예리한 이해와 시사비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보석 같은 책이다.

하이에크는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에 대해 항해 자신의 사회철학이 ‘진화주의적 합리주의’라 부른다. 그는 궁극적으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도나 정책들은 어떤 식으로 포장되든지 근원을 따져보면 두 가지 사이에 어느 하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모든 문제에 대해 정책을 통한 성급한 정부 개입주의의 근거도 모두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한국에서 나서 자란 다수의 사람이 이 같은 지적 전통이나 관습 그리고 분위기로 부터 자유롭기가 쉽지 않다. 진화주의적 합리주의에 체계적으로 노출되는 일은 정규 교육을 받고 있는 과정은 물론이고 사회 생활을 하면서도 쉽게 이뤄지기 쉽지 않다.

“가장 중요한 정치적 차이들은 궁극적으로 두 사상 학파 사이에 있는 일정한 기본적, 철학적 차이들에 있다”는 하이에크의 주장은 표면이 아니라 그 아래를 바라보면 불수록 진실이다. 또한 그는 “만일 구성주의적 합리주의가 사실 면에서 그릇된 가정

들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 과학적 사상학파들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사상 학파들 전체도 또한 오류투성이임이 입증 될 것이다”고 뚜렷하게 주장하고 있다.

권력자의 지적 능력에 대한 확신에서 너무 많은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에 하이에크의 주장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이론적 분야에서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는 특별히 법실증주의이고 그리고 이와 연결돼 있으면서 그 오류와 생사를 같이 한 무제한적인 ‘주권자’ 권력의 필요성에 대한 믿음이다.”

우리 사회에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하여 이것을 해야 하고 저것을 해야 한다는 믿음이 너무 팽배해 있는데, 어떤 현상의 바탕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규칙과 질서, 사회적 정의의 환상, 그리고 자유 사회의 장차질서는 3부로 구성된 이 책의 독자들에게 새로운 눈을 뜨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연영 고회를 막론하고 도전해 볼 만한 최고의 지적 산물이다. 공병호연구소장

이투데이, 말투데이

☆ 춘원(春園) 이광수(李光洙) 명언 “아름다운 감정을 가진 사람의 몸에서는 아름다운 향기를 발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인이지만, 친일 행각 때문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인물이기도 하다. 그의 작품 활동은 세 시기로 구분된다. ‘무장’을 발표해 근대주의적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역설한 첫 번째 시기. 두 번째는 상하이에서 귀국해 ‘재생’, ‘마의태자’, ‘단종애사’, ‘홍’을 발표한 시기. 세 번째는 불교적 경향을 강하게 보여주는 장편 ‘이차돈의 사’, ‘사랑’, ‘무명’ 등을 발표한 시기이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892-1950.

☆ 고사성어 / 금상상화(琴瑟琴相和) 금(琴)은 거문고, 슬(瑟)은 비파로 이 두 가지의 악기를 탈 때 음율이 잘 어울려 양자의 화음처럼 부부 사이가 정답고 화목한 것을 이르는 말. 원전은 시경(詩經). “처자가 좋게 합하는 것이 비파와 거문고를 타는 것과 같고 형제가 이미 합하여 화락하고 또 즐겁다.” [妻子好合如鼓琴瑟琴兄弟和睦和樂且湛]

☆ 시사상식 / 타임마케팅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할인 혜택을 특정 요일이나 시간대에만 제공하는 판매 방식을 말한다. 백화점 식품코너에서 마감시간 전에 하는 ‘떨이 판매’, 직장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시간대별 특별 할인 혜택이 강화된 카드를 새롭게 출시하는 등 기업들이 불황기에 시간 분석을 통해 틈새 시장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생겨났다.

☆ 우리말 유래 / 큰손 사채나 주식 투자를 크게 하는 사람을 뜻한다. 같은 뜻을 지닌 일본어 ‘오오데(大手)’를 직역해 사용한 데서 유래했다.

☆ 유머 / 아빠의 정의 해수욕장에 간 가족, 아이가 바다에 뛰어들려 하자 엄마가 위험하다고 말했다. “근데 왜 아빠는 저쪽에서 수영을 하는 거야?” 아이가 칭얼대자 엄마가 달래는 말. “그야 니 아빠는 여러 가지 보험에 들어 있거든.”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삶연구소장

기자수첩



박미선 유통바이오부/only@

‘기승전 최저임금’ 탓만 할 것인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어느 상인은 계산기를 들고 와 하루 5시간씩 두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쓰는데 전년보다 올해 최저임금이 830원(8350-7530원) 올랐으니 인건비로 24만9000원이 더 나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부담이긴 하다. 그런데 몇 천만 원씩 내는 임대

료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사가 안 되고 상권이 죽어도 임대료는 요지부동, 심지어 고공행진이기 때문이다.

방송인 홍석천 씨도 ‘기승전 최저임금’ 탓에 흥역을 치렀다. 그가 이태원에서 운영하던 가게 중 두 곳을 폐업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폐업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한 것. 이에 홍 씨는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 요인은 아니었다”며 “임대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폐업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이 예년보다 높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짚어내는 기사들과 달리 실제 현장을 나가 보면 고개를 가우뚱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실업, 소득 양극화 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학계의 연구 결과도 부정과 긍정으로 나뉜다.

최저임금 인상을 옹호하는 게 아니다. 다만, 모든 걸 최저임금 탓으로 돌려도 되는지, 그러는 과정에서 진짜 더 큰 문제점을 놓치지 않았는지 더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다.

경기지표가 악화할 때마다 원인으로 지목되는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 탓에 고용이 부진하고, 외식물가가 오르고, 자영업자 폐업이 늘고, 국내 공장이 해외로 나간다고 한다. 경기가 고꾸라지는 모든 일에 ‘최저임금 인상 탓’이 붙는다. 과연 그럴까.

최저임금 인상 이후 길거리 상인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이들은 대체로 최저임금 인상이 장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 동의했다. 그도 그럴 것이 “최저임금이 오르고 인건비 부담이 있느냐”라고 질문했으니, 임금이 올랐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다고 답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 그들의 진짜 속사정이 나온다. 상인들은 “최저임금보다 임대료가 더 큰

'배드 딜' 보단 '노 딜'이 낫다

데스크칼럼

배수경
국제경제부장



한국이 선불리 중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서 북한에 당근책을 제시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다.

트럼프 칭찬에 아주 인색한 미국 언론들조차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선 "배드 딜(bad deal)보다는 노 딜(no deal)이 낫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빈손 귀국에 토를 달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하는 분위기다. 트럼프가 영변 핵 시설 외에 추가 발견한 대규모 우라늄 농축 핵시설을 거론하며 김정은의 허를 찌르지 못했다면 나중에 트럼프는 더 큰 웃음거리가 됐을 거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남북 경협과 다자 안보 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밝힌 건 상당히 유감스러운 처사라는 생각이다.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이번 회담까지 결렬시킨 마당에 정작 당사국으로서 압박자가 도드라진다. "북미 대화 완전 타결,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도를 묻고 싶다. 배드 딜이어서 반드시 성사시키는 게 맞다는 것인지. 국민과 기업들은 언제

까지 '중전 선언' '남북 경협'이란 표현에 희망 고문을 당해야 하는 것인지.

미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북한과의 빅딜에서 한국의 입장은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미국 정부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실제로 전력(戰力)을 이동시켜 야외 기동훈련을 하는 '독수리훈련'과 지휘 계통을 시뮬레이션하는 '키리졸브'를 모두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측은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따른 비용이 너무 커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고, 훈련에 중점을 둔 소규모 훈련으로 대체한다고 한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이 북한과의 3차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북미 사이에 긴 한국은 배제할 결정이라는 건 확실해 보인다. 트럼프 정부는 작년 6월 첫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의향을 표명했다. 트럼프는 군사훈련 비용이 너무 크다고 여러 차례 비판했고,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도 똑같은 견해를 나타냈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하려면 합동훈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으나 트럼프 경관이 작년에도 합동훈련 중단 의향을 밝힌 이후에는 군사훈련이 최장 2년은 없어도 지장은 없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김 위원장은 아직 여장도 풀지 못했다. 비장의 결단은 우리에게가 아니라 그에게 달렸다.

sue6870@

시설

남북경협 제동, 현실 직시하고 속도조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진 핵 담판의 결렬로 남북 경협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경협에 속도를 내왔지만, 북·미 정상 간 합의 실패로 대북 제재 완화가 물 건너간 데 따른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당분간 제재 완화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제재 완화에 대한 미·북 간 입장에 얼마나 괴리가 큰지 분명히 확인됐다. 회담 결렬 후 양측은 엇갈린 설명을 내놓았지만, 미국은 영변 외 공개되지 않은 다른 핵시설의 전면 폐기를, 북은 영변 핵단지만을 협상 대상에 올려놓고 사실상 전면적으로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정리된다. 한마디로 북은 제재 완화 요건인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따라서 앞으로의 협상 전망도 밝지 않다. 비핵화에 대해 서로 생각하는 방향이 너무 다르고, 그 간극이 좁혀지기 힘들어 보이는 까닭이다. 향후 비핵화 협상이 계속 진전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해 결과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핵폐기에 대한 입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문 대통령의 중재가 바람직한 결과를 도

출하기 어렵다. 협상이 재개된다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대북 제재의 장기화도 불가피하다. 정부가 속도를 내온 경협 사업도 일단은 멈춰져야 한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경협을 지렛대로 비핵화의 진전을 이끌어내려 애썼지만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정부가 우선 과제로 삼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말할 것도 없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어떤 경협도 제재 완화가 먼저 이뤄져야 가능하다. 미국이 주도했지만, 국제사회가 합의한 유엔 차원의 제재다. 우리도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다.

정부가 분명히 직시해야 할 현실은 북이 비핵화에 진정성이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자주 경협만 앞세운다.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북·미 간 협상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고, '신한반도 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전제는 북의 실질적이고 완전한 비핵화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어떤 경협이든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비핵화는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신한반도 체제도 북의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가 담보되어야 실현 가능한 구상이다.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는 구호에 불과하다.

구성현의
작자지킴이



사회경제부 차장

'부동산 거래절벽' 시장 생태계도 망가진다

한다.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놨을 때 잠시 주춤했을 뿐 결국엔 다시 올랐던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있음에도 인위적으로 눌러놓은 것이라면 결국은 시장 원리에 의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물론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량 거래 감소는 불가피하다. 거래량과 가격이 통상 비례한다는 게 시장 정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의 거래량 감소폭은 너무 가파르다는 게 문제다.

특히 최근의 상황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안정화'가 아닌 '숨고르기'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쉽게 말하면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집을 살 수 있는 길을 막아 버린 결과라는 것이다. 늘어나는 가계부채 등을 들먹이며 정부가 규제라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시장의 기본 원리를 여기는 정부는 이제까지 없었다.

최근의 상황은 규제에 적응이 되거나 어느 부분이 풀릴 경우 대기수요는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다.

시중에 풀려 있는 1100조 원 규모의 유

동자금과 내년에 풀릴 20조 원 규모의 토지 보상비도 집값을 다시 들쭉이게 할 변수다. 증시 등 자본시장도 출렁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

규제가 만든 거래 절벽과 집값의 하락세를 놓고 집값이 잡혔다고 안도하는 건 선분은 생각이다.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렇다고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다. 세계 누를수록 튀어오르는 힘도 커지게 마련이다.

역설적이지만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면 사람들은 집을 사지 않는다. 표면적으로는 집값이 하락해야 한다고 하지만 자가 집을 샀을 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집값이 오르면 사람들은 비난을 하면서도 자기 집을 마련할 방법을 찾곤 한다.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집값 안정의 최종 도착점은 집값의 연착륙과 함께 거래 생태계를 살려놓는 것이다.

지금처럼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사라지는 현상이 오래되면 국가 경제적으로나 주거 안정 어느 것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carlove@



입학(入學)

3·1절 뒤로 주말이 이어지다 보니 각급 학교가 오늘에야 개학하고 입학식도 오늘 갖게 되었다. 일부 학교에서는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해 2월 말에 미리 입학식을 치르기도 하였다.

'들 입(入)', '배움 학(學)'을 쓰는 입학(入學)은 글자 그대로 '배움에 들다'라는 뜻이다. 入學이라는 말이 처음 쓰인 것은 아마 중국의 경전인 '예기(禮記)'의 '학기(學記)' 편에 나오는 "比年入學, 中年考校"라는 말에서부터일 것이다. 比는 흔히 '견줄 비'라고 훈독하지만, '해 년(年)'과 함께 하는 '比年'은 '매년'이라는 뜻이다. '入'은 '가운데'가 주된 뜻이지만 '간격을 두다'라는 뜻도 있다. 여기서의 中年은 '격(隔) 1년', 즉 '한 해 걸러'라는 뜻이다. '考'는 '꼼꼼히 살펴보다'는 뜻으로로부터 확대되어 '시험보다'는 뜻도 갖게 되었으며, '校'는 흔히 '학교 교'라고 훈독하지만 '교정(校正)하다', '심사(審査)하다'라는 뜻도 가진 글자여서 '考校'는 '꼼

꼼히 살펴 심사하고 교정하다'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比年入學, 中年考校"는 "매년 학생들을 받아 입학하게 하고 2년에 한번씩 시험을 치러 상급 단계로 나아가게 할지 말지를 판가름한다"는 뜻이다.

'학기'의 기록에 보이는 고대 중국의 입학 의식은 매우 정중하고 학업 과정도 사뭇 엄격하다. 학업 과정에 대한 여러 설명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어린아이는 듣기에 주력하게 하고 함부로 묻지 못하게 한다"는 구절과, "하(夏)와 초(楚)라는 회초리를 사용한다"는 대목이다. 함부로 묻지 못하게 하는 까닭은 단계를 건너뛰는 것을 막기 위함이고, 회초리를 거론하는 까닭은 위엄을 갖추기 위함이라는 설명이 있다. 새 학기의 시작과 입학식이 있는 오늘, 생각 없이 해대는 질문을 오히려 '발표력 신장'으로 여겨 권장하고, 회초리는 무조건 '폭력'으로 규정하는 우리의 교육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이투데이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감사했던 50년을 넘어 보답하고 싶은 50년을 향해

지난 50년,
함께 해주신 고객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대한항공이 되겠습니다

